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초등영어교육의 정착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n the Stability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장 미 경

2020년 2월







석 사 학 위 논 문

초등영어교육의 정착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n the Stability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장 미 경

2020년 2월



초등영어교육의 정착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n the Stability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지도교수 고 경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장 미 경

2019년 11월



장 미 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홍경선



심사위원

고경희



심사위원

김수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12월



목 차

국문 초록	ii
I. 연구를 시작하며	1
II. 연구의 배경	4
III. 연구 방법	8
1. 연구 참여자	8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9
IV. 각 교사의 견해	10
1. A교사의 관점과 견해	10
2. B교사의 관점과 견해	21
3. C교사의 관점과 견해	26
4. D교사의 관점과 견해	43
5. E교사의 관점과 견해	57
V. 연구 결과	67
1. 연구 문제1	67
2. 연구 문제2	74
VI. 논의	81
VII. 연구를 마치며	86
참고 문헌	88
ABSTRACT	91

표 목 차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경력	8
----------------------------	---

국 문 초 록

초등영어교육의 정착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장 미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고 경 희

본 연구는 초등영어교육과정의 시작시점부터 초등영어교육을 경험한 다섯 명의 초등 교사들의 견해에 기초하여 초등영어 교과가 초등교육과정에 정착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정착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아래의 연구 문제에 기반한 정성적 연구이다.

연구 문제 1. 초등영어교육의 시작부터 함께 했던 교육 경력 22년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은 어떤 이유로 현재 영어 교과가 정규 교과로서 정착된 것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연구 문제 2. 만약 연구 참여자들이 초등영어 교과가 정규 교과로서 정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들은 초등영어교육의 정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가?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에서는 연구 참여 교사 다섯 명이 초등영어교육의 정착 여부에

대한 인식에서는 한 명의 교사를 제외한 네 명의 교사가 초등영어교육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정착 여부 인식에서는 입장 차를 보였으나, 초등영어교육에 대해서 다섯 명의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첫째, 영어 교과지도 담당교사 제도 면에서 담임교사 지도체제가 운영되지 않아 학습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기 어렵고, 소수 교사 지도 체계에서 다수 교사들의 교과 지도 전문성이 신장되기 어렵다. 여러 보조교사 정책들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은 초등영어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의 장애 요소이다.

둘째, 전담교사 중심 운영 체제에서는 영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와 관리가 어려워 학생들이 제학년 제학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

셋째, 초등영어교육과정 구성과 효율적인 교수법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부족하다.

넷째, 영어교육에 대한 교사 간 협의체를 통한 정보가 제한되어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연구 문제 2에서 초등영어교육이 정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해 교사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의 배움을 촉진할 수 있는 담임교사제로 교과 지도 교사제를 전환해야 한다. 담임교사제로의 전환은 좀 더 질 높은 초등영어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기제가 되어 연구 문제 1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을 축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교사가 주도적으로 영어 교육을 하면서 원어민보조교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를 위해서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학력 측정 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더 적절한 지도 형태인 담임교사 지도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초등영어교육과정에서 문해력 발달을 위한 단계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개발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재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장에서 실시되어 교육 효과를 높이는 창의적 교수법의 개발과 공유를 장려하는 장학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선행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의 견해와 상통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영어교과가 초등교육 교과과정에 도입된 취지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계와 교육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어 : 초등영어교육의 정착, 초등영어 교과전담제, 원어민보조교사, 초등영어교육.

I. 연구를 시작하며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과로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한 때는 1997년으로 초등영어교육은 이제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초등영어는 정규 교과로서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연구자는 영어 교과 전담교사로서 재직하면서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가 영어전담 교사로 재직하던 때는 중견 교사로서 이전보다는 넓은 안목으로 초등영어교육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로 여러 교사들과 영어교육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같은 관심을 가진 교사들끼리 의견을 나누다보니 초등영어교육이 초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질문들은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초등영어교과의 정착 여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새롭게 도입된 어떤 시스템의 정착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때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영어 교과는 이 교과를 도입할 때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가를 묻는 연구이다.

영어는 초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역사가 가장 짧은 교과목이다. 그런 이유에서 다른 교과와 달리 정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사가 20여년이 되었고 이 시점에 이 교과의 정착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의아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 수학, 혹은 그 외의 교과목을 교육한 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교과가 초등교과로서 정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면, 당연한 것에 대해 뜬금없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와 같이 20여년의 교육을 실시해 온 시점에서 교과의 정착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영어 교과의 현상은 타 교과의 관점에서는 의아한 일이다.

연구자에게 있어 본 연구의 주제는 교사의 자질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초등영어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어 교과는 초등교사라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야함을 전제로 한다. 영어 교과가 정규 교과이므로 그러하며, 학급담임

제와 교과전담제의 혼용 속에 어느 교사든 언제든지 영어 교과를 지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5년 교육 경력의 연구자는 초등영어 교육의 도입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영어 교과의 지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다른 교과들처럼 영어 교과도 문제없이 가르치는 교사이고 싶었다. 그러한 바람으로 연수와 대학원 과정 이수 등의 전문성 신장과정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고 자부하지만 20여년의 역사가 지난 현시점에서 다른 교과만큼 영어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라고 공언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연구자에게 이제 영어 교과지도에 대한 부담은 예전 같지 않다. 굳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고경력 연구자에게 영어 교과 지도의 의무가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기 이전 교원양성과정을 밟은 연구자와 달리, 양성기관에서부터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과정을 밟았을 뿐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영어구사능력이 좋은 후배 교사들이 배출되어 이들이 더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문제는 현재의 체제로는 이러한 후배 교사들의 다수의 미래가 연구자의 모습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들의 미래에서도, 교육 경력에 비례하여 자신감과 노련함이 쌓여가는 다른 교과 지도와 달리, 영어 교과의 지도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도 능력에 대한 의문과 좌절감이 점철된 교사생활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토대로 어떤 정규 과목에 대해 다수의 교사들이 자신의 지도 능력에 의문과 좌절감을 갖고 있다면 그 교과는 일단 정착을 위한 토대부터 바로 자리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연구자는 품게 되었다. 그리고 20여년의 역사가 쌓인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다른 현직 교사들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을까 궁금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구자와 같이 초등영어교육의 도입될 때부터 현재까지 영어교육의 역사를 지켜본 교사들은 현재 영어 교과가 정규 교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정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그 이유를 듣고, 초등영어교육의 정착 여부에 대한 교사들이 견해를 종합하고, 만약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정착을 위해서 어떤 제

안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기가 되었다. 조사해본 결과, 초등영어 교과에의 안착과 관련한 교사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행해진 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2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래의 연구 문제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초등영어교육의 시작부터 함께 했던 교육 경력 22년 이상의 교사들은 어떤 이유로 현재 영어 교과가 정규 교과로서 정착된 것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연구 문제 2: 이들의 관점에서 초등영어교육이 정규 교과로서 정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을 때 영어 교과가 정규 교과로서 되어갈 것으로 보는가?

초등영어 교과교육이 정착되었는가, 즉 도입할 때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착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하여 다각도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정량적 및 정성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 현장 교사들의 관점이라는 한 각도를 선택하고자 한다. 초등영어교육의 정착 여부와 정착을 위한 방안이라는 이전에 조사된 바 없는 연구 주제에 학교 현장 교사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초등영어교육의 실태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가지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섯 명의 교사를 면담하여 채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주제에 접근하는 소규모의 정성적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초등교사 전체의 견해로 일반화하려 데 의도가 있지 않다. 다만 연구결과를 기존의 관련 연구와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결과의 의미를 자리매김해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배경

연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초임교사로서 첫발을 내딛은 해는 1994년이였다. 그즈음 초등영어교육에 필요한 교사를 확보하려는 영어 연수에 대한 교육청의 독려가 있었고, 학교에서 교육 경력이 가장 짧았던 연구자는 영어교수법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시에 영어를 가르치는 데 부담감을 많이 느낀 선배교사들을 대신 해서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큰 가운데 연수를 계속해서 신청하고 이수하였다. 1994년 12월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영어담당교사 62시간 연수와 1997년 교육청에서 진행한 초등영어담당교사 심화과정 직무연수를 122시간 이수하였다. 그리고 초임 교사로서 교육에 매진하고 있었던 1997년에 영어 교과목이 등장했다. 그러나 첫 발령지에서는 근무 연한 때문에 영어 교과서 선정 절차만 진행하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야 했던 관계로 영어교육을 직접 담당할 기회는 없었다.

그 후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서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영어 교과를 가르쳐야 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또 자료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이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모른 채 무작정 수업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영어 수업에 들어가는 연구자의 손에는 교과서 이외에도 영상자료인 비디오테이프와 음성자료인 카세트테이프가 들어있는 덩치가 큰 오디오가 들려 있었고,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무거운 교육 자료가 함께 했다. 이후 교육 자료들은 점차 휴대가 간편한 CD로 바뀌어갔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자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교과서와 교육자료만이 아니라 교실의 모습도 변화해갔다. 교실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등장한 것이다. 처음에는 연구자의 눈에도 낯설기만 했던 원어민 보조교사는 어느새 학생들에게 문화적으로도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또한 영어회화전담강사나 베스트교사를 비롯한 영어전담 교사가 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특별 교실로 영어실이 생긴 것도 변화 중 하나이다. 연수의 내용도 다양해져서 연구자의 경우 출석연수와 원격연수를 이용한 영어 연수를 꾸준히 이수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영어교사 해외문화연수 1개월 프로그램과, 심화연수인 5개월 원격

연수 이후 1개월 해외연수로 구성된 프로그램도 이수하였다. 이렇듯 영어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교사 연수 및 교실 환경, 교육자료, 영어 교수법들도 바뀌기를 거듭하여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생긴다.

그러나 지난 22년간 행해진 초등영어교육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영어전담 교사로서 영어 교과를 지도하게 되었을 때 연구자에게는 궁금한 점이 생겼다. 초등학교 교사는 당연히 초등교육과정의 모든 교과를 지도해야 하고, 영어는 초등교육과정의 정식 교과이기 때문에 초등 교사라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 교사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모든 초등 교사들이 언제라도 영어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점이였다.

연구자는 지금까지 25년의 교직 생활 중 7여년을 담임교사로서, 교환수업의 일환으로, 영어전담 교사로서 영어 교과를 지도하였다. 나머지 17년은 영어를 가르칠 기회가 없었다. 전근 가는 학교마다 영어전담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있었고, 연구자가 원하는 경우 동료 교사와 과목을 교환하여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 교사는 영어 교과의 지도의 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학교의 규모나 교사 인력 운영상의 이유 등에 따라 담임으로서 혹은 전담교사로서 영어 교과를 지도해야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읍면지역의 소규모 6학급의 규모이다. 올해는 과학 교과를 교과전담제로 운영하기로 한 상태로 연구자는 부장 교사를 겸하며 과학교과를 전담교사로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전담 과목을 영어로 지정한다면 연구자는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 현재 연구자의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초등 교사에게는 영어 교과 지도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은 데에 반해 연구자를 비롯한 모든 교사는 영어 교과를 다른 교과만큼 잘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연구자에게는 영어 교과를 지도했던 기억이 멀다. 영어 교과 지도 단절 기간이 그만큼 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 교과를 담당한 이후로 약 8년이 지났다. 물론 그 사이에도 간간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외국문화 이해에 대한 주제 활동을 했었고, 영어방송을 이용한 간단한 말하기 수업 등의

활동은 해왔지만, 교과로서의 영어를 지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영어 교과 지도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이 있다. 다른 교과의 경우에는 이런 단절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교과의 흐름을 파악하고 가르칠 수 있어 어느 때든 큰 어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교사로서 그러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혹시 영어를 가르치기에 연구자의 교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영어는 언어 교과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구자의 영어 실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원어민은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잘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끝없는 질문이 생겨나기만 했다. 이와 같이 초등 교사로서 영어 교과의 지도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갖게 된 질문들은 영어 교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도에 비추어 초등 교사들의 관심도와 인식은 어떠한가로 이어졌고, 연구자가 갖고 있는 질문이 연구자에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영어 교과는 과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이런 호기심은 영어 교과에 대한 애정과 그동안 영어 교과지도와 관련하여 연구자 본인이 느꼈던 아쉬움이 동료 교사들도 느꼈던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특히 젊은 동료 교사들이 대학에서 열심히 이론과 실습으로 익힌 영어 교수 능력을 학교 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인해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먼 훗날에는 내 경우와 같이 영어 교과는 누군가 대신 지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편안함에 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된다.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자로서 학생들에게 배움을 일으켜주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어 교과를 지도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연구자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후배들의 미래의 모습을 예견해볼 때와 같이 교과의 지도 자질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교사가 영어 교과를 지도할 것으로 기대하는 교사가 많은 한, 그들에게 초등영어교육이 맡겨졌을 때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교사의

지도 자질이라는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초등영어교육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즉, 20년이라면 하나의 교과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영어 교과는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른 교과들과 마찬가지로 정착 여부에 대한 의문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교과로 자리 잡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방향 재정립을 할 필요성 또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지켜보아왔던 교사들 스스로의 관점을 통해 알아본다면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 와 해답을 모색해볼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초등영어교육의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영어교육을 지켜볼 수 있었던 교사들이 초등영어교육의 전체적인 맥락을 꿰뚫고 있으며, 그 동안 쌓인 경험과 안목으로 초등영어교육의 정착 여부와 정착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기에 적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초등영어교육이 교육 현장에 정착하였는지에 대한 22년차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데이터를 수집하였던 2018년 당시 교육 경력이 22~27년인 5명의 교사들이었다. 이들이 교육대학에서 교사양성과정을 밟을 때에는 영어 교과가 초등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이전이었고,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중 초등 영어교육 지도 관련 강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교사들은 학부과정에서는 초등영어 지도와 관련한 이론이나 실습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5명의 교사 중 4명은 영어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경우였다. 이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것은 이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것에서 이들의 영어 교과 지도에 기울여온 관심과 노력이 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효과적인 영어교육에 대한 고민과 모색 또한 더 많이 해왔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에서 A교사는 제외였으나, 이 교사는 비전공자로서의 관점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아 포함하였다. 이들 5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는 3년~19년에 걸친 영어 교과 지도 경력을 갖고 있었고 담임교사로서 3년~15년, 교과전담교사로서 1년~9년의 지도 경력을 갖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경력을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총교육 경력	영어교육 경력	담임교사 영어교육 경력	영어전담 교사 교육 경력	초등영어교육 석사학위 소지
A교사	27	3	3	0	무
B교사	26	12	3	9	유
C교사	22	9	5	4	유
D교사	23	3	2	1	유
E교사	22	19	15	4	유

<표 III-1>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가. 데이터 수집

데이터는 1인당 2회, 회당 1~2시간 정도의 개별 면담 과정을 통해 수집하였다. 면담은 전체 교육 경력 및 영어 지도 경력 등 영어교육의 정착 여부 등의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대화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데이터 분석

연구 참여자별로 개별 면담 데이터를 전사하고 이를 여러 번 읽으며 드러나는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이 후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초등영어교육이 정착하였다고 보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어 이들의 견해에 기초하여 초등영어교육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재까지의 초등영어교육의 어떤 점들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IV. 각 교사의 견해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 다섯 명의 견해를 종합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초등영어교육의 정착 여부에 대한 각 참여자들의 답변을 참여자별로 제시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A교사의 관점과 견해

A교사는 교육 경력 27년의 50대 교사이다. 연구 참여자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이며 영어교육 경력은 담임교사로서 지도한 3년으로 다른 연구 참여 교사에게 비해 짧은 편이다. 영어 교과가 초등교육의 정규 교과로 도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영어 연수에 참여하면서 인식이 바뀌었고, 현재 영어 교과는 나름 정착이 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초등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가 충분한 점, 공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영어교육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A교사는 한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들과의 교과협의를 통해 고학년에서 학생들의 수준 차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을 현행 교육과정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교육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담임교사 지도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런 체제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교육방법이 더 확산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A교사는 영어 교과도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요구수준에 맞는 학급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초등영어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즐거운 배움의 경험을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원어민보조교사의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아래에서 이러한 A교사의 견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 초등영어 도입기의 부정적 입장과 교사 연수를 통한 인식 변화

A교사는 영어 교과가 초등교육에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에 초등영어 교과 도입에 반대 입장을 가졌고, 시작 시기에는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다.

저는 처음에 영어 교과가 도입되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영어 교과가 초등학교에 정말로 필요한 교과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었어요. 교사로서의 입장에서든 처음에 교과 시간도 아닌 특활 시간에 1시간씩 가르치라고 했을 때는 두렵기까지 했죠. 교사인 나는 영어교육을 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가르쳐야 한다니까요. 초등학교 과정을 시작하는 1학년 학생들을 비롯한 저학년 학생들에게 영어가 정말 필요한 언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글 공부가 우선인 학생들이었고, 수준을 보았을 때 한글을 떼기도 쉽지 않은 학생들이데 영어를 가르치라고 하니 그때 정말 답답했죠. 그래도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치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 간의 능력 차가 생기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혹시나 그에 따른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교사로서 처음 영어교육을 시작할 때에는 걱정과 고민 속에 시작한 셈이죠.

그러나 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영어 연수에 참여하면서 문화로서의 영어교육에 대해 알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두려움도 줄어들었다. 예전에 자신이 학생일 때는 영어가 단지 문법을 암기하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만 했던 교과로서의 영어였지만, 이제는 영어가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도 앞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교사는 없는 상태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했기에 당시에는 반강제적으로 교사들을 영어 연수에 참여시키는 분위기여서 나도 120시간의 영어 연수에도 참여했지요.

그런데 교사 영어 연수를 받으면서 그동안 영어에 대해 가졌던 인식이 바뀐 부분도 있어요. 학생으로서 내가 받았던 영어교육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였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는 단지 과목으로서의 영어였지만 교사 연수를 통해서 실은 영어가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어 교과는 무조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암기하며 시험을 보고 좋은 점수를 얻어야만 잘 하는 언어인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교사 연수를 계기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달라졌어요.

나. 영어 교과과정의 정착 여부에 대한 견해

A교사는 현재 영어 교과과정은 초등교육과정의 한 교과로서 정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 첫째, 현재 초등영어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담임교사가 많이 배출되었고, 대부분의 젊은 교사가 초등학교 영어 교과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예전과 달리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점, 둘째, 교육 경력 20~30년차 교사의 경우에는 영어교육에 대해 두려움이나 자신감의 부족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초등영어 지도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 셋째, 공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영어교육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교과로서의 영어가 나름 정착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담임교사가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지금 경력이 20년 이상 되는 교사들이 영어교육에 아직도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물론 경력이 많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이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죠. 경력이 많아도 영어교육 분야에 다른 선생님들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무척이나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나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교사로서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수학을 좋아하는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만 다른 교과목에서는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영어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니까요. 하지만 교사로서 영어 교과를 가르쳐야 한다면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젊은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전과 달리 영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적어졌다고 봅니다. 최근 영어전담강사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도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영어와 관련된 지원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주 같은 경우 ‘들엄시민’이라고 해서 사교육이 아닌 가정에서 학부모가 영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영어 공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는 인터넷 환경 등의 발달로 영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죠.

A교사는 최근 영어 교과와 관련된 연수의 축소, 연수 내용의 변화, 연수 참여 교사의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학부에서 영어 교과 지도에 대한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영어 교과 지도를 그리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전반적으로 영어교육의 질은 향상되고 있으며 다만 이것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저는 영어교육이 들어올 무렵 교사 연수를 통해 영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어요. 요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단기적인 영어 연수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영어 회화 위주의 영어 연수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의 연수는 영어권 문화나 영어의 흐름 등을 위주로 연수를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도 선생님들의 연수 지원이 많지 않은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 이제 변하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이나 배움의 공동체 같은 교실 수업 자체에 대한 연수가 많이 생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어 연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내용도 변화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런 상황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특활영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이 당연히 긴장했고, 연수를 통해서라도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 안전교육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연수를 이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영어 교과라는 것이 나름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들이 예전보다 아주 많이 개설되어 있고 또 예전에 비해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교육대학 학부 과정에서도 영어 심화과정이 있고 영어교육에 대한 수업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영어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어의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또 관심을 갖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의 온작품 읽기에 관심이 있어서 온작품읽기 연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다. 영어 교과 지도 전문성 소지 여부 및 교환 수업을 통한 교육 효과 제고

A교사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모국어로 수업을 하는 다른 교과와 달리 영어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느냐는 질문에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교과를 그 교과의 특성에 맞게 가르치듯이 영어 교과도 특성에 맞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한다. 영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고 영어 구사력도 높지 않은 자신과 같은 경우에, 다른 교과보다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 했지만 초등 교사로서 누구나 영어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교사의 지도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교환수업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영어 교수에 대한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다른 교과목의 경우는 모국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또 항상 가르치던 교과여서 언제라도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결국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다른 과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초등교과는 교과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초등 교사는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국어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국어를 지도하고, 과학 교과의 특성에 맞게 과학을 지도하죠. 이렇듯이 교사는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과 소통하며 교육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타 교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무게와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어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력이 20년 이상인 나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어쩌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영어 교과를 담당하게 되면 좀 더 시간을 들여야 하죠. 저도 몇 년 전에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을 때, 가르치기 전 사전에 영어 교재 연구를 하는데 다른 과목을 준비하는 것의 2~3배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었어요. 여러 가지 CD자료 또는 영상자료의 도움도 받지만, 어쨌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우리 학급에 영어를 아주 잘 하는 우수한 학생도 있어서 그 학생의 도움도 받았지만 일단 교사가 맡아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는 두, 세 배의 교재 연구가 필요했어요.

A교사는 자신도 충분히 영어 교과를 지도할 수 있지만 영어 교과지도를 선호하는 교사들과 교환 수업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교사들끼리 지도에 더 자신이 있는 과목을 다른 교사의 학급까지 가르치는 것이 교사들의 장점을 살리고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도 높다고 생각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을 담당해서 영어를 가르쳐야 했는데 마침 옆 반 선생님께서 영어 전담교사를 했던 경력의 선생님이었고, 영어는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하시며 그 대신 본인이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과 교환하여 수업을 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서로 교환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두 학급의 교환 수업의 만족도는 아주 높았어요. 옆 반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함께 같이 볼 수 있어서 담임의 학급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초등 교사라면 누구라도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초등 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어를 가르칠 수 있었지만 교환 수업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실행한 부분이죠. 저는 생활 지도에 관심이 있어서 도덕 교과를, 옆 반 선생님은 영어 지도에 관심이 있어서 영어 교과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교사가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교사로서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었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남은 것 같았어요. 물론 두 명의 교사가 서로 학생들의 정보 교환이나 여러 가지 학급에 관한 상황을 상의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교환 수업의 결과가 좋았어요.

라. 실질적인 학생들의 언어 능력 개발을 위해 교사가 주체적으로 구성한 교육과정 운영 경험

A교사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에 상관없이 고학년 학생에게서는 많은 수준차가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영어 교사 전문성과 학생의 성취도가 비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교사의 전문성보다 교육과정에 있지 않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 수업이든 영어회화전문강사든 교수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교사 입장에서는 편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저 같은 교사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교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특히 6학년의 경우 영어 학력에 대한 학생 간의 수준 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어요. 담임교사가 가르치든,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가르치든 이런 현상은 항상 나타나서 이런 격차가 교육과정상의 문제일까도 생각해 봤어요. 심지어 6학년인데 알파벳을 모르는 학생도 있었어요. 또 문자는 알지만 발음을 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런 고민을 시작으로 교내에 있는 교사들과 초등영어 시작 학년인 3학년에서부터 담임교사들이 함께 협의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과정 요소와 방법으로 실험적인 영어교육을 진행하였다.

사교육의 경우 기본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파닉스 과정이 초등영어에는 없어서 단어를 읽는데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어요. 우리 교육과정에 발음기호를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에게 학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학생 스스로 사전을 가지고 단어를 찾고 익히려면 학교에서 발음기호라도 가르쳐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이 답답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한글 공부를 강화해서 1학년 과정에서 거의 17시간 늘어났잖아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한글의 원리를 배우고 시작하는 것처럼 영어도 자음과 모음의 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교사끼리 수업연구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전부 재구성했죠. 학년 초 거의 2~3개월을 알파벳의 조합을 알아보고 파닉스를 익혔어요. 이렇게 기본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학생들이 영어를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들의 판단과 도전이었죠.

마.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들의 수업 협의

A교사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고학년에서 수준 차를 줄이기 위해 3학년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 스스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업 협의의 역할을 역설하였다.

작년에는 영어를 교환하여 수업하는 선생님과 저, 그리고 3학년 담임으로서 영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영어전담회화강사가 수업 협의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자’고 합의하고 우리가 마련한 방법으로 영어교육을 진행했어요. 고학년에서 영어 학력 수준 차를 줄이기 위해 3학년에서부터 잘 가르쳐보자고 한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담임교사가 주도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동참하는 방식이었고,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협의에 이어 주별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요청하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있기는 했지만 모든 영어 시간에 다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지도하는 시간이 있고,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담임교사가 주도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어떤 부분을 나눠서 지도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지도해야 하는지 주 1회 협의회를 운영했어요. 주 1회 학년별 협의를 하고 2월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기간에 모든 교사가 영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생님들에게 필요하다면 영어 전문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도 듣자고 했죠.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영어 수업컨설팅을 요청해서 실시했어요. 수업 전 협의회에서 영어 수업 과정안을 함께 기획한 후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하여 여러 생각을 함께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과정이 영어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한 교육과정의 구성은 학교 전체가 영어 교과는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체제하에서 전체 교사들의 협의를 통해 학교 전체의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한 후, 학년별로 협의를 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주별 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담임교사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조정 및 보완을 해 나갔다. 타교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되었지만 모든 담임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체제를 경험하는 기회였다.

선생님들이 협의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 학교의 현재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 속에서 다시 큰 감이 잡히고 학년별 협의를 하게 되었어요. 협의를 하면서 잘된 것, 잘되지 않는 것, 보충해야 할 것 등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생각했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수준이나 상태를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계획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학급마다 결과 차이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해 그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영어를 직접 지도하는 첫 해였고, 담임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교육을

진행했어요. 저의 경우는 영어 교재 연구에는 타교과에 비해 2~3배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교환수업을 한 옆 반 선생님의 경우는 영어 수업 준비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았어요. 저는 영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느낀 경우여서 한 학년 동안 교환 수업이라는 형식을 취한 거죠. 모든 담임교사가 영어를 가르쳐야만 하는 상황이 된 배경에는 근무 학교가 제주형자율학교인 다흔디배움 학교로 지정되고 운영 시스템이 변화되어 전담교사가 줄어들면서 전담교과로 영어가 선택되지 않은 이유도 있었어요. 담임교사들이 영어는 직접 가르쳐보자고 한 거죠.

바. 담임교사의 영어 교과 지도의 효율성 및 영어 교과 지도 능력을 갖춘 교사 인력

A교사는 영어 교과에 있어서도 자신 학급의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담임교사 지도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담임교사가 지도하면서 자신과 같이 어떤 영역의 지도에서 필요하면 전문적인 교사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후배교사들은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들을 갖추고 있어 영어회화전문강사 대신 영어교육을 담임교사들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급 맞춤형 영어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보고자 한다면 정말 적절하게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담임교사라고 생각해요. 우선 아이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교사가 바로 담임교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유리하죠. 담임교사가 지도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으로 지도를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요구수준을 읽고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공부하는 시작 단계예요. 첫 시작에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에 저 같이 경력이 많은 교사는 전문적으로 영어를 전공한 교사들에 비해 약간 어설피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전문적인 선생님이 보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저의 경우이고요. 요즘 학

부과정에서 초등영어교육을 이수하고 학교에 오신 교사들은 이런 보조 없이도 충분히 가르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요즘은 여러 자료가 잘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로는 담임을 맡고 계신 후배교사들이 전문가 못지않은 영어 실력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영어회화전문강사 대신 영어교육을 담임교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 학급에 맞춤형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죠. 담임교사의 장점이지요.

사. 담임교사 지도 체제에서 효율적이었던 교육과정 확산의 어려움

A교사는 학생들의 실질적 영어 교과 능력 배양을 위해 교사들 스스로 고안하고 실행했던 3학년 대상의 교육과정을 학생 상황이 다른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일은 아니며 특히 그러한 교육과정은 다른 조건이 비슷하더라도 담임교사 지도제가 아닌 경우 운영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일 년 동안 협의하고 교육한 내용이 다른 학교에서도 적용이 되면 좋았겠지만 우선은 학생들의 상황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학교마다 영어 담당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어를 꼭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실천한 결과를 다른 학교에서 다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해요. 물론 해마다 교육의 흐름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자기의 관심 분야에서 특색적인 교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의 경우 학생들이 즐겁게 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온작품 읽기 교육을 연중 집중적으로 전개하죠.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국어교과의 특색활동 전개에 대한 고민과 영어 교과의 활동을 위한 고민을 비교하면 영어 교과 지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훨씬 적었어요. 저학년을 담당한 기간이 길고, 또 영어전담 교사가 있는 학교에 근무한 기간이 많다보니 담임으로서 영어를 지도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영어전담 교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가르치지도 않는 교과의 경우 굳이 제가 교육 활동을 고민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아. 초등영어교육이 제공해야 할 즐거운 배움에 대한 고민

A교사는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기본적인 표현 활동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필요를 강조했다.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완벽하게 배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영어에서 가장 기본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충족시켜줘야 할 부분은 영어를 배우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의 기본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기본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과목도 그 과목에서 좋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생도 분명히 있죠. 학생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도로 영어라는 언어가 학생에게 이해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굳이 모든 학생이 영어를 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영어 표현을 이해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본인이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전공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익혀나가겠죠. 우리가 굳이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학생이 영어에 몰입해서 완벽하게 배우려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교과에 대해 기본적인 철학은 아니지만 교육에서 어느 정도는 성취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영어에서 가장 기본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충족시켜줘야 할 부분은 영어를 배우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평가를 위해 영어 표현의 도달, 미도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배우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취기준에서도 영어를 즐겁게 배우는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학생이 영어공부를 두려움 없이 시작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학부모도 똑같아요. 학년 초 학부모와의 첫 상담시간에 반드시 들어가는 상담 내용 중 하나가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부모든 학생이든 처음 맞는 외국어에 대한 어려움은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영어는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게 많아, 외국인과의 인사도 나눌 수 있으면 좋잖아?’ 이렇게 독려하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좀 더 영어를 흥미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사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자. 원어민 보조교사의 교육적 가치

A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어민과 함께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원어민보조교사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원어민과 직접 만나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학교생활을 함께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이 학생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투자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2. B교사의 관점과 견해

B교사는 총교육 경력 26년의 50대 교사이다. 교직경력 중 영어를 가르친 것이 담임교사로서 3년, 교과전담교사로서 9년으로 총12년의 영어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에 비해 영어교육 경력은 높은 편으로, 교육 경력의 반을 영어전담 교사로서 활동한 영어교육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영어 교과연구회 회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였으며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B교사는 영어 교과 도입기에 열풍처럼 불던 관심이 가라앉기는 했지만 그것이 초등 영어교육의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도입 초기의 영어 교과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과 고민이 없어지고 전담교사제로 운영하면서 점점 누군가가 대신해주기를 바라는 교과가 되는 것을 아쉬워한다. 초등 교사들이 영어 지도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원어민보조교사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문제가 컸음을 지적하고, 담임교사 지도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아래에서 이러한 B교사의 견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 초등교육의 교과로 정착되었다기보다 지도에 관한 교사들의 관심이 시들해진 영어 교과

처음에는 영어교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폭풍처럼 열렬했지만 현재는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이 가라앉고, 영어 교과가 특별한 교과가 아닌 보통의 교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도입 초기에 컸었던 영어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교사들이 영어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점점 사라지게 했다고 생각한다.

B교사는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폭풍 하나가 지나간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폭풍이 지나가서 안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영어교육이 정착되었다기보다 관심이 시들해진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영어전담 교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지도하는 체제에서 다수의 교사들이 영어를 지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영어교육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 동안 영어는 교과전담교사로 또는 담임교사로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다른 교사에 비해 어찌면 영어교육 경력은 많은 편이에요. 현재 나에게 영어 교과에 대한 한 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폭풍 하나가 지나갔다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열풍처럼 불었던 것이 이제는 정착되었다기보다는 처음에 열렬했던 관심이 좀 시들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영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어나 수학이라는 과목이 교과인 것처럼 영어도 지금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처음에 영어가 도입되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의 과정이 너무나 컸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나 고민이랄까 하는 것을 크게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영어가 도입되고 모든 교사가 이제 내가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영어전담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굳이 영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겼어요.

나. 전담교사제로 운영이 되면 누군가 대신 가르쳤으면 하는 교과

B교사는 영어 교과 지도에 대해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영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해야한다는 것에서 온다고 보았다. 교사 임용 시험에서 영어 지도를 위

한 시험을 통과하여 오는 신규 교사들도 대부분 영어 교과 지도에 부담을 느끼고 피하러 한다고 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영어를 지도하는 형편이어서 별로 부담감이 없는 데, 일반 교사들 사이에서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부담감이 있어요. 이를테면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시연과 영어면접 시험 관문을 통과해서 학교에 왔지만 막상 실제로 학교에 와서는 굳이 영어 교과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신규교사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영어 수업을 하기는 부담을 느끼고 수업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국어는 우리가 매일 접하고 한국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수업을 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영어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교과예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영어를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영어전담 교사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영어 교과는 많은 교사들이 피해가는 교과가 되고 이는 영어 교수 단절 기간의 장기화와 연결되고 이에 이어서 영어 교과에 대한 관심의 희박, 영어 교과 지도 의지 약화, 영어 지도 능력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 학교는 영어전담 교사가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어전담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수업을 맡지 않았으면 하는 교과가 되고 있죠. 누군가가 대신 해주었으면 하는 교과요.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체육이 중요한 교과이기는 하나 굳이 내가 하지 않고 체육전담 교사가 해도 되는 교과가 되듯이 영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영어교수 단절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영어 교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생각도 줄어들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다. 원어민과 의사소통의 부담이 영어 교과 지도 회피의 원인

B교사는 일반적인 초등 교사라면 고경력 교사를 포함하여 충분히 영어 교과를 지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에게 있어 영어 교과 지도의

어려움은 수업의 전문성에 대한 부담보다는 팀티칭을 하는 원어민 교사와 교실에서 수업 중에 그리고 수업 협의를 하기 위해 영어로 의사소통해야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초등 교사의 실력이면 충분히 영어 수업을 가르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여쭙보면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영어전담 교사는 꼭 있어야 한다고 하세요. 하지만 막상 영어를 맡게 되면 고경력 교사들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일단 영어 교과서를 많은 투자를 들여 만들어서인지 교과서대로만 해도 일단 영어교육의 기본은 달성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가르칠 때 수업에 대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에 대해 들어본 경험과 그 내용은 주로 원어민보조교사와의 의사소통 문제였던 것 같아요. 수업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자체들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학생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든가 또는 학생에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원어민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의사소통하기에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즉, 수업의 전문성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과 함께 팀티칭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팀티칭 수업이라지만 막상 수업 전에 교재 연구를 함께 한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영어전담 교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힘들지요. 전담교사의 경우 정형화되어 있는 수업 전개가 있어서 수업을 할 때마다 서로 조금씩 협의하고 다음 수업에 대한 전개 방식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담임교사와의 팀티칭 수업에서는 사전 협의가 어렵겠지요.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영어 수업은 초등 교사가 주가 되고 원어민보조교사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어민보조교사가 주가 되고 초등 교사는 보조 역할을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팀티칭 수업에서 원래 주 강사는 담임교사이고 원어민교사는 보조 역할을 해야 하지만 보통 원어민교사가 거의 수업을 이끄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담임교사의 역할을 원어민교사가 하고 담임교사는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주강사가 원어민교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원어민교사들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수업에서 주 강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B교사는 이러한 상황은 초등 교사들에게 있어 영어 교과외 지도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보다 원어민보조교사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우선 걱정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며,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팀티칭이 아니라 교사 혼자 수업을 해도 된다면 많은 초등 교사들이 충분히 영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교사가 영어를 잘 가르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하는 문제보다도 원어민보조교사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원어민보조교사와 하는 수업이 아니라 혼자 수업을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어 수업을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를테면 어떤 선생님은 읽기 중심으로 또 다른 선생님은 쓰기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전개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가르치지 못하겠다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라. 담임교사 지도의 장점

B교사는 초등교육과정에 있는 교과중의 하나로 영어교육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어야하고 그 점을 생각할 때 교사 간 정보 공유와 협의 과정의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과전담과 같이 소수의 교사가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영어교육을 담당할 때 교과지도를 위한 협의와 교류가 활성화 된다는 점에서 담임교사 지도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에 정말 관심이 없는 교사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이 전담교사와 담임교사로서 영어교육을 했던 경험에 비춰봐서도 담임교사로서 가르쳤을 때 학생들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장점이 많았다고 하였다.

영어교육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등교육에 있어서 영어는 교과중의 하나로 고민해야지, 영어만 고민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영어 교과

교수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의하는 과정의 부재인 것 같아요. 영어전담 교사의 경우에는 교수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그런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영어 교과연구회 회원으로 2주에 한 번씩 회원들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학교에 영어전담 교사가 1명 가르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정보 공유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죠. 여러 명이 영어교육을 할 때 영어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와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라도 영어는 전담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전담 교사로서도 영어를 가르쳤고 또 담임교사로서도 영어를 가르쳐보았어요.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담임으로서 영어를 가르칠 때가 학생들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영어동화책 읽기, 팝송 부르기 등의 여러 활동을 시간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할 수 있어서 훨씬 좋았어요. 담임교사로 영어를 가르칠 때의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교사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영어에 정말로 관심이 없는 교사의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말이죠.

3. C교사의 관점과 견해

C교사는 총 교육 경력 20년의 40대 교사로 총 영어교육 경력은 9년이다. 초등영어 교과가 도입된 지 5년째 되던 2001년부터 영어 교과를 지도했다. 2003~2006년까지 4년 동안은 교과전담교사로서 가르쳤고, 담임교사로서는 5년 간 영어교육을 실시했다. C교사는 초등교육에서 영어 교과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 영어 교과는 전담과목 1순위 지정 교과이거나 굳이 담임교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과목으로 생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C교사는 교육과정 및 지도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왔으며, 영어가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과가 되어 있는 현상도 지적한다. 초등영어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교수방법의 적용 및 담임교사 지도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C교사는 담임교사로서 원어민 보조교사와 협력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교수법을 고안하고 적용하여 나타나는 교육 효과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교

육 효과를 내기 위해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수업의 방법에 대해서 정립된 견해를 갖고 있다. C교사는 교육 효과를 주목하지 않고 정형적인 지도방법의 틀에서 교사의 지도 능력을 평가하는 장학의 문제점 또한 제기한다. C교사는 영어도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C교사의 견해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 중요도 높은 과목으로 거론되나 주변부 과목의 위상에 머물러 주요 교과로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C교사는 일반적으로 국영수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는데 초등교육에 있어서 영어는 국어나 수학 교과처럼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주변부 과목의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영어 교과가 교사들이 가르칠 교과라기보다는 업무분장 영역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점, 전담교과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지도를 다른 교사가 해주었으면 하는 교과를 지정하게 되는데 영어가 전담교과 선호도 1순위라는 점, 즉 영어 교과지도를 기피하는 교사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보통 국어, 영어, 수학은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초등교육에서 영어는 국어나 수학과목처럼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학년 초에 인사 배정 할 때부터 영어는 전담과목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굳이 담임교사가 영어 교과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과목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아직도 있어요. 중요도는 국영수라고 말하면서 주변부 과목에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비유하면 될까요? 한참 영어교육 붐이 일었을 때 영어는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담임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장선생님도 봤었는데 이제는 ‘영어 교과는 누가 맡을 건가요?’라는 말 속에 영어가 하나의 업무분장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국어 교과는 누가 가르칠 거예요?’하고 논의하지는 않잖아요? 학교에서 전담교과를 정할 때는 선생님들이 전담교과를 선호하는 교과로 정해요. 그때 전담교과 선호도 1순위가 영어예요. 선생님 자체가 자기가 가르쳐야 하는 교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제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신입교사의 경우 영어실력도 뛰어나고 대학교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졸업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꺼리는 경우가 있죠. 영

어의 실력이 좋은 것과 영어를 좋아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하지 않으면 실력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지도서와 자료가 있으니 아주 잘 가르칠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가르칠 수는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면 말지 않으려 하는 과목이 영어인 것 같아요.

아울러 모든 교사들이 알고 지도할 만한 지도법이 공유되지 않은 점, 누가 가르치더라도 좋은 영어교육이 될 수 있는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영어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주변부 교과에 머물러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쨌든 필요성은 있지만 모든 교사들이 알고 지도할만한 지도법도 공유되지 않았고, 영어가 교과로서의 기본적인 체계나 틀은 있지만 현장에서 영어교육이 완전히 체계가 잡히기에는 아직 모자라요. 중등은 영어교육의 오랜 역사가 있어서인지 완전히 교과로서 자리 잡았어요. 또 영어가 입시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될 해도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초등에서는 흥미와 지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가르치더라도 좋은 영어교육이 될 만큼 그만한 틀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논란이 많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많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 교과에 특별한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지만 학부모의 경우는 중등영어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사교육에 몰두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영어성취도 차이가 오히려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요.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인성교육과 함께 교사의 가치관을 함께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어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 중에는 영어의 기능적인 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봤어요.

나. 교사들이 영어 교과 지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기피하는 이유

C교사는 교사들이 영어 교과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기피하게 되는 이유로 외국어 구사력에 대한 부담,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름, 원어민보조교사와 의사소통 및 관리에 대한 부담, 영어 관련 행사 담당의 부담, 학생들의 영어 과목을 싫어함 등을 들었다.

영어는 내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주저하게 되는데 굳이 그 이유를 묻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외국어 구사력에 선생님들이 제일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가르치는 방법도 잘 모르죠. 그리고 원어민 교사가 있을 때 원어민보조교사와 의사소통해야 하는 두려움이나 원어민보조교사를 관리해야 하는 업무적인 이유도 많아요. 저도 영어전담을 하기 싫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영어말하기 대회나 캠프 운영 같은 업무상의 이유였어요. 요새는 각종 대회가 예전보다는 축소되어 그런 부담은 줄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영어전담 교사를 맡지 않겠다고 교사들끼리 서로 미루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다른 전담 과목은 좋아하는데 영어시간을 싫어해서 영어전담 교사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의 경우 과학은 실험활동도 하고 체육은 여러 활동을 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비해 영어는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도 있고, 영어교실에 가서 말하기 싫은데도 말해야 하고, 특히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반감이 높기 때문에 교사들이 전담과목을 맡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전담을 하더라도 영어 말고 다른 과목을 맡겠다고요. 학생들이 영어 교과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결국 교사도 영어를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학생들도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다. 영어 교과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C교사는 영어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은 향상되었으나 학생들 간의 수준 차는 더 커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른 교과와 비교하여 표준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였다.

가르치는 교사의 질은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다고 생각해요. 영어에 대한 경험도 많고, 언어 구사능력도 많이 향상되어서 예전보다는 교사의 전문성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수준 차가 예전보다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교실 내에서도 수준 차가 있지만, 학교와 학교 간, 지역 간에도 수준 차가 있어요. 똑같은 음식 재료를 주고 요리를 했을 때 요리법에 따라 전부 다른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같은 표준적인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하기에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 교과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하였다.

학생의 실력 차만이 아니라 영어 선호도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교과에 대한 학습성취도가 높은 편이죠. 이를테면 체육교과를 좋아하면서 체육활동에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수학 교과를 싫어한다면 수학 성취도가 낮은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 있어요. 영어를 잘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런 경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국어를 예를 들면, ‘국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국어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보통 없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어느 정도 잘 하는데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이 제법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2001년부터 영어 지도를 시작했는데 그 때 근무지가 소규모 학교였어요. 물론 학생들은 거의 사교육 경험이 없었어요. 그들 중 영어를 조금 잘한다는 아이들조차도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영어를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만 제대로 마쳐도 중학교에 가서 무리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영어를 싫어하고 기피하는 마음부터 들면 어떻게 중학교에 가서 영어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 들었어요. 답임으로서 영어를 가르칠 때 영어 교과 시간 이외에 아침활동으로 영어방송 듣기라던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영어활동 등을 1시간 정도씩은 하려고 했어요. 학생의 영어 교과 선호도를 높이고 학생들 간의 실력 편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었죠.

학생들의 수준 차를 말할 때 동지역에서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많아서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에 따라 영어 성취도 수준에 많은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사교육 환경이 그리 좋은 편에 속하지 않아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수준 차가 생겨요. 다른 과목에 대한 성취도는 높는데 비해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 성취도가 높지 않은 현상이 간혹 발견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모두 90점 이상의 성취도를 얻는데 영어를 70점을 받는 학생이 있었어요.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3학년 들어서 영어를 처음 접하고 다른 애들이 좀 더 자기보다 잘하는 애가 있으니까 그냥 포기한 건지

영어를 위한 두려움이 컸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런 학생의 성취도를 끌어 올리려고 해도 이들은 영어 시간만 되면 자기랑 성적이 비슷한 다른 애들은 유창하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는지 자존감이 떨어진 듯 말도 안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영어에 대한 노출에 대한 기회가 거의 없어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영어교육의 전부인데, 옆에서 교사가 할 수 있다고 자꾸 격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영어라는 교과가 뭐길래 학생들의 의지가 꺾여야 하는가 하고 고민도 했어요. 학생들의 배움의 의지와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안이 아쉬워요.

라. 초등영어교육의 역할

C교사는 공교육으로서 초등영어교육의 역할은 ‘영어를 흥미가 없고 부진한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게 하고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는 신념을 피력하였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사교육 학원만 하더라도 각각의 학원마다 가르치는 중점과 강조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학부모들이 영어에 보내는 관심을 겨냥해서 영어의 듣기를 중요시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스토리텔링을 중요시하고 어떤 곳은 원어민이 직접 모든 시간을 교육한다는 등 학원마다의 특색 있는 교육을 선전하고 있죠. 초등교육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수업에서 소화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일단 초등영어교육에서는 영어에 흥미가 없고 부진한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게 하고,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앞서 C교사는 영어 교과는 국어나 수학과 비교하여 초등교과로서 정착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상급학교로의 입시에 초점을 맞춰 학습에 치중하는 중등영어교육과 달리 초등영어교육은 흥미와 학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하니까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C교사는 초등영어교육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영어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흥미 위주의 활동을 하는 시간이 누적되는 것은 초등 학습자들의 영어 실력이 도태되는 결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어 시간에 한 마디라도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부터 길러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봐요. 3학년부터 너무 흥미 위주로만 다가가다 보면 수업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영어 게임은 재미는 있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영어습득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면 좋는데 정말 영어를 한 마디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도 있거든요. 이런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오히려 영어 실력이 도태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C교사는 학생들이 특정 학년의 교육과정을 숙지하여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임과 함께 원어민보조교사 위주의 수업, 학생들이 말할 기회가 적은 수업, 잘하는 학생 위주의 수업 등을 수준 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흥미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잘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만 제학년의 내용을 이수하고 다음 학년에 진급해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가끔은 흥미만 자극하고 학생들에게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게임 활동 위주로만 끝나는 영어 수업인 경우에는 수업 내용에 아쉬움이 많아요. 또 너무 원어민보조교사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나 학생들이 말할 기회가 별로 없는 수업,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 등은 학생들의 수준 차를 더 벌리는 것 같아요.

C교사는 그러한 수업으로 벌어지는 수준 차의 하위 부분의 학습자들이 영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도법과 자료의 개발 그리고 수업의 설계와 실천을 위한 중지가 모아지고 축적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학년의 성취 수준을 달성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초등영어교육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초등학생들이 영어 교과에의 학습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을 구체해 줄 지도법이나 자료들이 개발이 되어야 해요. 교사들은 이미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입장에서 영어가 쉽다고 느껴지는 것이지만 부진한 아이들에게 영어라는 교과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어려운 영어를 좀 더 쉽게

해결해줄 수 있는 수업 설계와 실천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법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공교육 안에서 제학년의 성취 수준만 도달해서 진급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에게는 영어를 배우면서 느낄 수 있었던 즐거움과 배움의 욕구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사끼리의 정보 공유도 중요할 것 같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C교사는 교사들이 영어 교과를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로 하위 학생들의 낮은 수준을 의미하는 수준 차를 흔히 지목할 때, 이는 성취도가 높은 학생을 기준으로 삼거나 영어 능력이 이미 뛰어난 교사들의 시각에서 현상을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기준을 거기에 두고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보며 왜 못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할 것이 아니라,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있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하고 이의 학습을 도와야한다고 강조한다.

영어교사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애들이 수준 차가 너무 많이 나서 가르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수준 차라는 것이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에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 수준을 잘하는 아이에게 맞추어서 했을 때 수준 차가 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선에서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교사들이 이미 영어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이걸 모르지?’ 그렇지만 못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알파벳을 모른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학생들이 알파벳이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4학년으로 진급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어쩌면 공부할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못하는 것을 학생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교사들이 그 이상향을 버려야할 것 같아요. 영어 수업을 시작하면 오늘 학습할 내용을 한 번만 말해줘도 아이들이 입에서 술술 구사하고, 교사의 물음에 다 대답을 해주고 이런 이상향을 버리고, 수업 전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지도해야 한다는 거죠.

C교사는 교육 경력이나 영어 교과 지도 경험의 유무에 따른 교사들의 인식의 차이도 언급하였다. 젊은 교사들은 교사의 영어구사력을 중시하고 아동들의 흥

미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경력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전개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교육 경력에 따라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갓 졸업한 새내기 교사와 우리같은 경력 교사와의 인식도 차이가 날 것 같고, 또 실제로 영어 교과를 가르치지 않는 교사도 많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영어 교과와 또 우리가 계속 지켜봐왔던 지도의 실제도 다를 것 같아요. 젊은 교사일수록 영어 구사에 유창해야 하고, 수업 설계도 아이들의 흥미에 맞춰 좋아하는 활동 위주로 설계하면서 영어 수업을 깔끔하게 수행하는 것을 전문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고경력 교사일수록 아이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전개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C교사는 영어교육을 함에 있어 학습자를 우선 파악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설정한 교육정책이나 성취 수준을 따랐던 자신의 교사 경력 초기의 경험을 떠올리며, 중요한 것은 학습자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교과서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하려면 전담교사보다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육 경력 10년 이하의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수준과 20년차 이상의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20대 때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는 제 영어구사력이 좋았었어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이 한창 유행이었을 때는 영어 수업을 할 때 교실에서는 영어만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크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학생들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생각하고 난 이후에는 ‘교사의 영어구사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떤 말로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부터 같은 질문과 대답을 가르치더라도 학생들의 수준에서 쉽게 해줄 수 있는 요령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어로 하는데도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너무 속상해한 적도 있었어요. 자꾸 좌절감도 생기고 스스로 화도 났고요. 나중에는 반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부터 가르칠지

를 정하고 즉, 목표치를 다르게 해서 가르쳤어요. 학년의 성취 수준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교과서 내용을 어떻게 쉽게 다가가도록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과서 내용이 길고 어려우면 재구성을 해서라도 가르쳐야죠. 무조건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는 거죠. 학생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면서 틀려도 괜찮다는 인식을 주는 거죠. 일단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먼저이고, 오류 수정은 그 다음이에요. 영어 학습이 뒤쳐진 학생들에게 수업을 맞추어서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담교사보다는 담임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 학생들이 누구나 그 학년 영어 교과의 기본 표현은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C교사는 초등영어의 교육과정은 적절하나 학생이 수월하게 학습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하며, 교과 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단순히 할 수 있다는 격려 이상의 것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자신 스스로 원어민보조교사와 함께 지도하는 패턴학습이라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결과는 성공적으로 학년말에 학생들 모두가 그 학년에 배운 내용을 교과서의 주요 표현을 응용하여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묻고 답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정이 20년이 흐르는 과정에 많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처음에 세웠던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우리 수준에 맞춰졌다고 생각해요. 교육과정과 지금의 요구 수준이 서로 부합되었다고 생각해요. 예전보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면서 군더더기가 없어져서 좀 더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수준이 맞춰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2001년부터 계속해서 영어를 지도해왔어요. 물론 처음 도입될 때의 최초의 교과서는 보지 못해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의 교과서는 내용 자체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다룬다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정리된 패턴으로 실제적인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수정하면서 초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단계에 따른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교과서 내용 자체가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세대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출발점이 비슷했어요. 사교육에 노출된 아이들도 거의 없었던 점도 있지만 일단 중학생이 되면 인지발달상 이해력이 높아지죠. 그 상태에서 알파벳과 파닉스를 깨우치는 것이 그래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인지발달상에서도 학생들 간의 수준 차가 좀 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3학년에 함께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너무 쉬운 내용이 되어버리고, 어떤 학생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인거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교과서 내용이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실제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만약에 중국어를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중국어 공부를 배우는 것과 초등학교 3학년 때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봐요. 한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내가 이해를 잘 했으면 실력이 오르겠지만 그 당시에 난관에 부딪히고 누가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이제 시작하는 아이에게 ‘이것 쉽지 않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하면서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원어민과 팀티칭 수업에서 패턴학습을 기획했어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번 학년에서 배운 기본적인 대화 패턴을 최소한 묻고 답하는 내용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을 처음 시도할 때는 어떻게 수업에서 기본적인 대화 패턴을 전개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다가 학생들의 경험에 비춘 답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를테면 주말에 한 일을 물었을 때 ‘어제 어디 갔다 왔니?’라는 묻는 말에 교과서에 나온 답 말고 실제 자기가 경험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수업에서 전개하기 위해 원어민과 계속 대화 패턴 학습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수업에서 패턴을 반복적으로 연습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년말에는 그 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없어졌어요. 읽기 쓰기에서는 조금 부진한 아이들이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듣기 말하기에서는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아주 효과가 좋았지만 다른 교사들의 경우 보통 이런 반복적인 학습 방식을 교과수업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어는 반복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 상

태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C교사는 자신이 활용한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사들 스스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각 단원마다 1차시를 배울 때 그 단원의 중요한 내용을 칠판에 써 놓고 차트처럼 만들어서 되풀이하도록 했어요. 중요한 물음을 칠판에 써놓고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원어민이 계속 학생들에게 묻게끔 했어요. 그러면 모든 학생이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물음에 대하여 수업 시간 동안 학생당 5개의 대답을 목표로 했다면 학생마다 5개의 대답을 하게 했고요.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이런 활동을 계속 했더니 학생들이 묻고 답하는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어요. 그 후에 그날의 활동을 학습하는 거죠. 이런 활동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 앞에서 활동했던 질문과 대답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서 시간이 그다지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인식되어서 학년에서 배우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었어요. 보통 교사들이 하는 방법처럼 그냥 아이들에게 학습 내용을 나열하고 따라해 보고 하는 활동만 했다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별 소득 없이 흘러가는 영어시간이 되었을 테죠. 교사가 이런 것에 유념하고 영어 수업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는 일단 수업 활동이 복잡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정한 패턴 반복이 교사나 학생에게 인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영어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시간 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일단 듣고 말하기는 실컷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읽기 쓰기는 그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아이들과 직접 상대하는 수업 장면에서 아이들에게 듣기 말하기 위주로 진행하고, 성취기준을 학급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바라고 있어요.

C교사는 또 문자 언어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알고 응용할 수 있도록 C교사 나름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도 반복학습의 원리를 활용하였고 학생들은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쉽게 습득하였다.

처음 우리말을 익힐 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것처럼 파닉스를 처음에 좀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칠판에 알파벳을 쓰고 매일 학

생들에게 읽혀 보았어요. ‘에이,비,시...’로 읽지 않고 ‘아,브,크...’이런 식으로 읽게 했어요. 이것을 노래로 몇 번 부르면 아이들이 그 후부터는 ‘C’를 ‘시’라고 읽지 않고 ‘크’라고 읽어요. ‘S’는 ‘스~’라고 읽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파닉스 공부 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몇 번을 하다보니 굳이 파닉스를 따로 길게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어요. 모음의 경우만 읽는 법이 달라지는 것들을 좀 구별해서 가르쳐보면 되겠다 싶어서 파닉스를 따로 시간 들여서 가르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가르쳤어요.

바. 담임교사로서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교실에서 했던 수업이 가장 효과적

C교사는 자신이 경험한 바로는 학생들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감안했을 때 담임교사로서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교실에서 수업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담교사로서가 아니라 담임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교실에서 수업을 했을 때가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담임으로 혼자 영어 수업을 했을 때와, 담임과 원어민보조교사가 함께 팀티칭을 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도가 좀 달랐어요. 혼자 가르칠 때는 학생들에게 주의집중 시키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데 학생들의 흥미도는 떨어졌어요. 영어를 좋아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 자체에 갖는 흥미도가 달라졌어요. 원어민보조교사가 투입되었을 때는 학생들의 호기심이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식구들끼리만 있을 때랑 손님이 찾아왔을 때랑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효과는 담임이 단일학급 내에서 계속 영어를 가르친 것보다는 그래도 영어교실에 가서 원어민보조교사와 함께 가르칠 때 영어 집중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영어전담 교사로서 가르칠 때는 학기 초에 학급 규칙을 만드는 등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영어를 하러 왔다는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조카들에게 담임 선생님과 영어전담 선생님 중에 누가 영어를 가르칠 때가 좋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전담 선생님이 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담임 선생님은 매일 보잖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결국

영어를 배울 때도 어떤 분위기 전환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동기를 더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어민 선생님이 있으면 좋아?’ 라는 물음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있으면 좋죠’라는 대답이고요. 그 이유를 물으니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느낌이 좋아서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보통 학교에서는 영어전담 교사가 한 두 학급이 아니라 여러 학급의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영어교육 효과는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먼저죠.

C교사는 원어민보조교사와 팀티칭이 효과적인 교육결과로 이어지려면 교사간의 역할 설정과 분담, 교과서의 재구성, 교사간 협의가 잘 이뤄져야한다고 하며, 교사간 협의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원어민보조교사와의 역할 분담을 잘 설정하고 어떻게 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잘 논의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들의 흥미도나 수준을 고려한 교재 재구성, 원어민과의 협의 모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원어민보조교사가 모든 담임교사와 수업 협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수박 겉핥기로만 끝나는 수업을 보면 안타까워요. 모든 수업에서 원어민보조교사와 수업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원어민보조교사에게 수업 패턴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패턴과 수업 전개 방법을 이야기해줬더니 원어민보조교사가 다른 학년의 시간도 그런 식으로 재구성하더라고요. 시간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담임교사와 모든 차시를 수업 협의를 할 수는 없지만 수업의 흐름을 살피고 학년 초에 조정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사. 제대로 된 팀티칭을 위한 원어민보조교사의 학생 상황 파악 필요

C교사는 원어민보조교사의 역할을 두 가지 대조되는 방식으로 다르게 활용해 보았다. 처음에는 영어 발음이나 패턴 학습을 위한 역할로서 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하였으나 팀티칭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친 후 원어민보조교사에게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어민보조교사의 역할을 전환하며 팀티칭을 통한 교육을 전개한 후 학생들 전체의 영어능력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저는 원어민보조교사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봤었던 교사였어요. 원어민보조교사와 함께 수업하던 때가 2003~2006년까지 4년 동안이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제가 생각하기에 시행착오의 시기였어요. 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법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는 영어 수업에서 영어발음을 확실하게 해줘야 하거나 패턴반복을 할 때에만 원어민보조교사를 투입해서 활용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원어민보조교사도 수업에 대한 적극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주도적으로 할 내용이 없으니까 뭔가 수동적인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제대로 팀티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담임인 저는 수업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원어민보조교사를 마치 로봇처럼 투입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시행착오였던 거예요. 원어민보조교사 또한 담임교사만큼이나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팀티칭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4년 동안 시행착오를 실제로 겪은 후에야 저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2009년도에 제가 담임교사로 원어민보조교사와 팀티칭으로 영어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원어민보조교사에게 우리 반 아이들 상황을 계속 들려줬어요. 누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지, 누가 더 연습이 필요한지를 자꾸자꾸 이야기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패턴을 잡을 것인지 함께 수업의 방향을 잡아나갔어요. 그렇게 하니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엄청 늘게 되고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서야 학생들에게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였어요. 원어민보조교사도 우리가 잘 활용하기만 하면 충분히 수업의 능률을 올릴 수 있어요. 그 당시 저는 학급 아이들을 4, 5, 6학년 3년을 연이어 담임을 맡았었고 원어민교사도 3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는 더 극대화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당시에는 우리 학교 주변의 다른 옆 학교로 전학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도 계절만큼 우리 학교 주변 교육 환경도 열악했고 당연히 사교육을 받는 애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아이들이 작년 입시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면서 엄마들에게서 고맙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학생들이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죠.

아. 교육 효과보다 정형화 교육방식을 우선 하는 장학

C교사는 자신이 고안한 교수법이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동안과 학생들이 졸업한 후까지 이어지는 교육의 효과를 보면서 이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주변에 권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형화된 초등영어 수업 방식과 달라 그러한 수업을 하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

정형화된 수업 방식이 해결할 수 없었던 고질적인 초등영어교육의 문제점인 수준 차의 문제를 극복하고 학년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하게 되어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이었으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운 정형화된 수업방식이 아니어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었다. 낮은 평가가 나오는 교수법을 주변에 권할 수는 없었으며 자신의 공개수업에서도 일반적인 인식에 맞춘 수업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교수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인지를 알고 실천했지만 이것을 다른 교사에게 권했던 적은 없었어요. 대부분의 교사가 정형적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정형화된 수업을 하다 보니 정작 우리 학급 학생을 진단하고 파악한 후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수업을 시도하려고 하면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원어민보조교사가 교사 평가를 위한 수업을 했는데 정작 평가 점수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실제로 학생들의 영어 자신감도 올라가고 선호도도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원어민보조교사도 이런 수업이 참 보람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결국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형화된 틀에 있는 수업을 원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다른 교사들에게 쉽게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수업에서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정작 공개수업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공개수업에서는 할 수 없이 PPT수업으로 하는 거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하는 PPT수업이 문제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패턴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저는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수업을 했지만 다른 교사들에게 추천을 하기는 좀 두렵죠.

교육 효과를 우선 들여다보지 않는 장학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C교사는 사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초등영어교육 과정을 충실히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반복학습이 필수적이라는 신념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학습 성취도가 부진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보충지도를 하는 국어나 수학 교과와 달리 영어 교과가 교과전담제로 운영되는 환경에서는 담임교사들이 학급 학생들을 보충 지도할 수 없어 학생들의 학습 부진이 지속되고 심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도 지적하였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업만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려면 반복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은 학습 성취도가 부진한 학생의 경우 계속 보충 지도를 하는데, 영어가 전담교과인 경우 다른 교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담임교사가 지도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또 서로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오해가 쌓일까 하는 생각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영어 교과도 담임교사들이 지도하는 체제가 바람직

C교사는 영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도 전담교사제로 인해 영어교수의 기회가 사라지는 교사들에 대해 지적하였다. C교사는 베스트 영어교사나 영어전담 교사는 교사들을 위한 멘토나 정보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담임교사들이 자기만의 영어교육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이 학생들에게 되레 영어 학습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는 싶은데 가르칠 기회가 없다는 분도 계세요. 영어를 가르칠 기회가 없다는 것은 문제죠. 심지어 영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 가르치는 분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전담교사제가 모든 선생님들의 영어 교수 기회를 가로막는 부분이 된다는 생각이예요.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도 그렇고요. 오히려 영어로만 하는 영어 수업이 학생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학생들 중에서 소위 영포자(영어포기자)가 생기기도 해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장려하는 가운데 생긴 베스트 영어교사나 영어전담 교사제는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해야 해요. 베스트 영어교사나 영어전담 교사만을 영어교육에 투입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교사가 다 영어교육을 하는 와중에 이를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칠 때 그 중에는 정보처리기사 등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더 갖추고 있는 분들도 있듯이 이런 방식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과정이 영어교육 투입을 위한 도구로 생각되어버리면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의 기회를 빼앗고, 영어교육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질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

려가 되죠. 다른 교과는 담임이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영어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물론 베스트영어교사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역할에 있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 공유나 멘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분들만의 효율적인 방법을 널리 알리고 영어교수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베스트교사들은 영어교육의 외길을 걸으면서 전문화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전파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만의 영어교육을 실천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C교사는 영어교육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나누고 효과적인 영어교육이나 영어 교수방법을 교사끼리 모여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교과전담제는 이런 고민 나눔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보가 제한되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어렵게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몇 년 전 제가 재직하던 학교에는 영어, 과학, 음악이 전담교과였어요. 그런데 2학기 말쯤이었는데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살펴봤더니 ‘나는 국어가 싫다, 나는 수학이 싫다, 체육이 좋다’라며 교과 선호도를 썼는데 맨 마지막쯤에 ‘나는 영어가 제일 싫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자녀가 영어공부를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경우 교사끼리 모여서 효과적인 영어교육이나 영어 교수방법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담교사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에서 이런 고민을 나눌 선생님이 없어요. 정보의 부재죠. 이런 것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4. D교사의 관점과 견해

D교사는 총교육 경력 23년의 40대 교사이다. 영어교육 경력은 3년이고 그 중 담임교사로서의 영어 지도 경력이 2년, 교과전담교사로서의 경력이 1년으로 영어 지도경력이 많지는 않으나, 개인적으로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영어를 전공하였다. 영어 교과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

비 없이 성급히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고 이 때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지원장치였던 원어민보조교사 제도가 오히려 초등영어교육이 파행적 운영을 야기했음을 지적한다. D교사는 교과전담교사제가 초등영어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초등영어교육에 있어 학년의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이끌고 상급학년으로 진급시킬 필요성과 이의 실천을 강조한다. 또한 D교사는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개발과 안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의 폐단을 지적한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영어교육의 필요성 및 교사편의 위주의 파행적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에도 주의를 환기시킨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자로서 영어교육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나누게 된 것에 고마움을 표할 만큼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가는 기회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포함함으로써 이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아래에서 이와 같은 D교사의 견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영어 교과목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입했던 것이 영어 교과 정착에 걸림돌

D교사는 초등교육과정에 영어 교과목의 도입을 좀 늦추더라도 교사들이 자신들이 영어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교사 연수나 교사간의 문화정착 단계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언급하였다. 그랬다면 영어 교과목이 초등교육과정에서 잘 정착되었을 것이고 교사들이 싫어하지 않는 교과목이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영어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넘었네요. 제가 교육대학교에 다닐 당시에는 초등영어교육과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영어 교과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졸업하고 몇 년 지나서 갑자기 영어 교과목이 들어왔어요. 영어 교과목이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 영어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대학에서 초등영어를 가르치는 법에 대해 배우지도 못하고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많은 부담이 있었고, 교사들이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초기에 원어민에게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생각해요. 교사들의 연수나 교사간의 문화를 만들기보다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원어민으로 대체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어요. 이렇게 시작부터가 불안정하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초등영어 교과가 도입될 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준비를 잘 한 후 도입했다라면, 또는 교사들이 스스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였으면 그 후 영어가 잘 정착되고, 교사들도 선호하는 교과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실제로는 서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영어 교과가 들어왔죠. 제 경우에도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이 났었고, 제가 신규교사 시절에 3학년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하니 당시에 영어 연수를 받은 교사가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당시 저는 영어 연수를 미처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어 연수를 받았던 다른 선배교사가 영어를 맡게 되었어요. 그 후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후로는 영어교육은 신규나 젊은 교사의 몫이었어요. 기존의 선배교사들은 다 영어를 가르치지 않겠다는 분위기였어요.

나. 초등영어교육의 지원 장치로서의 원어민보조교사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

D교사는 교사들의 초등영어 교과지도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원어민보조교사의 문제점들을 다수 지적하였다. 먼저 다수의 초등 교사들이 원어민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저 팀티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 여러 문제점들의 출발점이 되었다.

원어민보조교사가 영어교육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지만 한국어 구사나 문화이해에 있어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원어민보조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간혹 원어민보조교사가 한국어에도 능통한 편이고 문화이해에도 열려있는 자세인 경우에는 교사들과 학생에 대한 학습이나 생활지도 정보 공유도 하기 쉬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어 교과 도입이 처음부터 불안정하게 시작했는데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아귀가 맞지 않는 불안한 과정이 이어지고 지금 현재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교사와의 협력 수업을 하라는 것 자체가 될 법하지 않은 일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원어민보조교사 없이 한국인 교사가 단독으로 하는 수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하였다. 결국 학년 교사 중 한 명이 대표로 원어민과 다른 한국인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을 도왔지

만 이것은 협력 수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팀티칭을 하기 위한 교재 연구조차 함께 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모 학교의 경우는 영어전담 교사가 4,5,6학년 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시수가 맞지 않아서 원어민과 담임교사가 팀티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학년부장교사들이 ‘우리는 영어전담 교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수업하겠다.’고 하셨어요. 담임교사가 단독으로 영어 수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원어민보조교사와 팀티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당시 동학년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교사가 우리의 의견을 원어민보조교사에게 전달해주고 원어민보조교사의 의견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아 서로 의사전달을 했어요. 결국 담임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팀티칭을 하면서 수업을 논의하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좀 파행적으로 운영한 셈이죠. 이것은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원어민과 함께 하는 팀티칭을 위한 영어교재 연구나 팀티칭 영어 수업을 하지 않은 거죠. 길으로는 팀티칭 수업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어 이외의 다른 교과 의 경우 교사 혼자서 교재 연구 시간을 가지는 반면 영어는 교재 연구조차 하기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국인 담임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함께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은 많은 경우 한국인 초등 교사가 교수의 주가 되고 원어민보조교사는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 원래 취지와는 달리 원어민보조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한국인 교사는 학생 관리 등의 수업분위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형태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저는 원어민보조교사가 수업에 들어오면 원어민보조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만 그렇게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0분 수업에서 원어민보조교사가 거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우리는 수업분위기를 조정하는 역할만 하였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함께 진행하거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어전담선생님의 경우는 우리와 달랐을 것 같지만요.

D교사는 초등영어교육의 도입기에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영어 발음의 모델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대상으로서의 원어민보조교사의 가치는 직간접적으로 외

국민에의 노출이 어렵지 않은 현재에는 축소되었으며, 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교사 연수에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하여 교사들의 영어 교과 지도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고 원어민보조교사 제도는 의무적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예전에 20년 전 영어교육 초기에 원어민보조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을 밖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파견된 원어민보조교사가 있어서 실제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원어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문화나 환경이 되었죠. 아이들이 교실에서 원어민을 꼭 만나지 않더라도 환경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도 외국인을 볼 수 있고, 미디어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나오고, 이제는 해외여행의 기회도 많아서 옛날과 달리 외국인을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원어민보조교사가 교실에서 직접 원어민 발음으로 들려줘야 하고, 시범을 보여야 하는 일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원어민보조교사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교사 연수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스스로 영어에 직접 접할 수 있는 자기 연수나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어 교과 도입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여서 원어민보조교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원어민보조교사를 운영하지 말고, 각 학교 자체에서 원어민보조교사의 필요 여부를 선택하고 운영하게 하면 좋겠어요.

다. 교과전담제와 담임교사제

D교사는 교과전담교사와 담임교사로서 영어를 지도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전담교사로는 전문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저는 영어를 교과전담교사로서 또는 담임교사로서 가르친 경험이 모두 있어요. 교과전담교사였을 때 좋았던 점은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교과전담교사를 몇 년만 해도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원어민보조교사

와도 수업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해서 의사소통이 되든 안되든 계속 이야기하다보니 언어능력도 향상되었고요. 그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딪쳐서 하다보면 뭔가가 되더라고요. 교과전담교사로서 좋았던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을 수업에 투입할 수 있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었어요. 교과전담교사의 경우 교과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이것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어요. 만약 담임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팀티칭을 할 때 담임교사에게 이런 분야의 투입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전담 교사를 한 다음 해에는 3학년을 맡아 담임으로서 원어민 보조교사와 팀티칭하는 영어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교환 수업으로 3학년 세 학급의 영어 수업을 맡게 되었는데 큰 부담이 없었어요. 물론 영어전담 교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수업준비가 부담이 되지는 않았어요. 영어 교과가 재미있는 교과이기도 하고요.

D교사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영어 교과 지도를 생각하면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지만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팀티칭 수업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담임으로서 영어 교과를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영어 교과를 지도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는 원어민보조교사가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담임이 보조 역할을 하는 영어 수업이 많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담임이 수업을 주도하는 수업에서 부담될 정도로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원어민보조교사가 주도하는 수업보다는 좀 더 많은 노력이 들겠지만요. 영어 수업이 반복적인 패턴이 있어서 빨리 익숙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통 교사들은 일단 영어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해보니까 영어가 제일 쉬운 교과 같아요. 예를 들어 고학년 사회는 어렵잖아요. 한 단원을 가르칠 때 흐름을 알아야 하고, 활동도 짜여져 있어야 하고요. 만약 사회와 영어를 비교하면 영어가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팀티칭 수업을 힘들게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아요.

D교사는 ‘모든 교사들이 같이 영어 교과를 연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아쉬워한다. 1년간의 교사 연수 계획을 학교에서 세울 때 영어 연수는 거론되지 않은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많은 영역에서 연수나 교사들 모임이

운영되는데 교사의 영어 공부나 영어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거나 정보 공유를 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의 원인이 누구나 영어 교과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데에 있다고 본다.

그동안 영어에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는데 막상 투자에 비해서 산출물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어 수업 운영에 있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모든 교사들이 같이 영어 교과를 연구하는 분위기가 생성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학년 초에 1년간의 교사 연수계획을 세우잖아요. 보건 연수, 학교폭력예방 연수, 정보 연수 등 교사가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연수 계획을 세우는데, 만약 지금 선생님들에게 영어 연수를 한다고 하면 당황스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영어 연수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독서교육에 대해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듯이 영어에 대해서도 자기의 영어 교수 경험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나누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달리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영어공부를 할 때나 영어 수업을 고민할 때도 학교 안에서 그 고민을 나누거나 영어 수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사람이 없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자료를 찾을 때도 인디스쿨(온라인 교사 자료실)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디스쿨은 온라인이어서 그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내 생각을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죠.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가르쳐야 하는 과목이면 다들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영어는 전담교사나 원어민보조교사가 맡아주시는 과목으로 생각하면 이런 관심이 줄어들고 한발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교사들은 현장에서 컴퓨터나 또는 다른 것들 즉,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스스로 배우게 돼요. 배우면 수업 현장에서든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든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배운 내용은 당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영어전담 교사가 아닌 이상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실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내 진로를 영어전담 교사로 하지 않는 이상 영어에 투자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영어도 가르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가르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어교수법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기피하는 과목이 되어가고 영어는 신규교사를 비롯한 젊은 교사에게 맡겨지는 교과가 되는 것 같아요. 다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D교사는 초등 교사 누구나가 영어를 지도하도록 하는 담임교사 지도제가 아니라 교과전담지도제가 영어 교과가 초등교육과정에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등영어교육이 잘 되려면 담임교사가 국어나 수학을 가르치듯이 영어도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학생들도 원어민보조교사나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는 교사만이 아니라 어느 교사에게서나 배울 수 있는 교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사들도 계속 영어 교과를 지도하게 되면 영어 교과 지도 역량이 신장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등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영어 교과전담제 자체가 영어 교과가 정착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초등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어렵지는 않아요. 교사들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교과내용도 아니고, 자료 제작도 아니고, 정작 원어민보조교사와 함께 수업해야 한다는 자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어교육이 잘 되려면 그냥 담임교사가 국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담임교사가 계속 영어교육을 맡다보면 교사들의 실력도 향상될 겁니다. 학생들도 영어는 원어민보조교사나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교사만 가르쳐야하는 교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하게 담임교사에게 배우는 교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영어 교과를 누구나 가르치지 않고 전담교사가 가르치게 되면 이는 소수의 남들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인식이 되고, 자신을 그 뛰어난 소수의 교사에 포함시키는 교사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초등 교사라면 누구나 초등영어를 지도하지 못할 교사는 없을 것이나 뛰어난 전문성에 대한 주변의 기대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영어전담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영어가 전문적인 교과로 교사들에게 잘못 인식이 되어 어떤 교사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치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고 생각하고 가르치기가 부담이 되는 과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도 이제 교사 경력이 20년차가 넘었는데 영어전담 교사를 희망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영어능력에 대한 전문성과 기대가 클 것 같아서 선뜻 영어전담 교사를 희망하기가 어려워요. 영어가 좋아서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졸업도 했는데 이 경력을 현장에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기존에 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전담 교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기대를 하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못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영어전담 교사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시는 교사도 있다고 생각하죠. 체육 전담교사라고 해서 체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아닌데 말이죠. 영어전담 교사는 발음도 좋아야 하고, 외국 여행도 많이 해서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요구되는 것 같아요. 보통 영어전담하시는 교사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베스트영어교사나 영어전담 교사제 자체가 영어교육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영어교육을 하겠다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죠.

D교사는 또한 담임교사 지도 체제에서는 학습의 영어 교과 부진 학생 파악과 지도에 용이하며 이들도 담임교사에게서 배우는 것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담임교사가 영어를 지도하면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 같아요. 전담교사가 가르칠 때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아닌 전담선생님 앞에서는 더 위축되고 ‘40분 수업 시간만 견디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라도 더 배워보자’가 아니라 ‘40분만 견디다 가자’라는 마음이 들것 같아요. 담임교사가 수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학급의 영어부진학생이 잘 파악될 테고, 담임교사가 충분히 더 그런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수업이 되겠죠. 국어가 도구 교과이듯 영어도 도구 교과여서, 기본 언어를 알아야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학습 부진아 지도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커요.

라. 학년의 성취 수준을 달성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D교사는 자신이 지도했던 5학년 학생의 사례를 들어 학년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현 상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어나 수학은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충지도를 꾸준히 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 학습 부진이 누적되어 심화되고 영어의 기초를 닦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영포자’ 낳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작년에 5학년을 맡았는데 담임이 영어를 가르쳤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원어민 보조교사와 팀티칭으로 영어 수업을 했어요. 우리 반에는 영어 학습부진아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다른 과목에서도 조금씩은 학습 부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어나 수학의 경우에는 아이 자체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하면 조금은 실력이 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학문제도 풀다가 어려우면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속도는 늦더라도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영어 첫 시간에 그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영어 하나도 몰라요’라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의 경우는 영어 수업이 하나도 이해되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수업 내내 영어가 들리지 않으니깐 활동 자체가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게임할 때도 영어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보니 전혀 참여도 안 되고, 자기 때문에 게임 흐름이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학생 자신도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3학년부터 누적된 학습 부진이 쉽게 극복이 되지는 않았죠. 학생 스스로도 자신이 영어를 못한다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있었어요. 다른 과목의 경우는 선생님과 함께 조금씩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과 쉬는 시간에 조금씩 공부해보자’라고 제안을 해도 ‘선생님, 저는 영어 아예 몰라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습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영어공부를 했던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구구단은 2학년 때 학생 모두가 외우게 하고 진급시키는데 영어는 학습 부진이 있어도 그냥 진급시키는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영어부진이 계속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국어는 한글을 모르거나 수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보충지도를 꾸준히 하고 학생의 성취도를 올리는데 신경을 쓰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악이나 미술도 굳이 학생의 성취를 제학년 수준으로 기대하거나 하진 않지만 예체능교과의 경우에는 창의력이나 또 다른 재능으로 능력이 발현되기도 하잖아요. 영어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학년에서의 영어교육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그냥 진급시켜왔던 거죠. 영포자(영어포기자)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학생마다 성취도 격차가 큰 경우를 문제점으로 생

각할 때, 저는 교사가 교육과정 내 성취목표를 기준으로 수업을 한다면 이런 성취의 격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D교사는 영어 교과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더 영향력을 갖는 교과라는 인식이 있고, 중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초등교육과정을 제대로 학습한다면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우선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초등영어교육의 운영을 강조하였다.

어떻게 보면 영어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되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공교육 안에서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어 내용 수준의 차이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될까요?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중등교육에서는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다 보니 이런 틈새를 노리고 사교육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어휘나 문형 같은 것들은 다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익히고 진급을 하면 중학교에서 그렇게 까지 영어를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학년에서 배워야 할 필수 요소를 잘 익히면 중학교에 진입할 때 영어 교과가 갑자기 어려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제학년에서 성취 수준을 제대로 이수하고 진급하면 중학교에서 조금만 더 영어에 노력을 기울여도 충분히 그 학년의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 교수 방법의 개발과 안내의 필요성

D교사는 다른 교과에 비해 교사들이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의 분야가 약한 것 같다고 하였다. 영어 교과 관련 연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시 되며, 타 교과에서처럼 ‘수업에 대한 방법이나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연수’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 교과처럼 수업에 대한 방법이나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연수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과의 경우 교수법 등도 많이 개발되고 알려져 있는데 영어는 그런 면에서

다른 교과에 비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전의 영어 연수는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았는데 요새는 외국문화이해 같이 예전과는 초점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인지 생각하면 좀 의문이 드네요.

원어민보조교사와 팀티칭을 하는데 있어 방법이나 수업 전개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어요. 팀티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모의수업을 해본 적도 없고 동영상으로 수업 현장을 접해본 적도 아직 없어요. 너무 궁금하기는 한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원어민보조교사와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과의 수업을 보면 교과나 단원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수업이 전개되는지, 아동은 어떻게 배치하는지 등을 배우고 적용하는데 타교과처럼 수업에 대한 방법이나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연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영어전담 교사를 할 때도 더 쉽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답답하기만 했죠. 도대체 팀티칭을 하라는 데 어떻게 팀티칭해야 할지 모르겠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또한 D교사는 다른 교과와 달리 영어 교과에는 수업모형들이 없다고 하여 지도 모델이 제시되지 않는 점도 의아한 부분이라 지적한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교과는 교사용 지도서에 수업 모형들이 제시되는데 영어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에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영어교육에서 제일 궁금했던 점인데요. 영어는 정해진 수업모형이 없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생 지도도 있고 해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수업모형도 그 중 하나였어요. 우리는 교생들에게 영어 수업모형도 제시하며 지도를 했는데 수업모형이 없다는 이야기에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지도했던 수업모형은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것이 아니라 수업모형에 대한 설명이 있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에서 본 것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궁금한 점이죠.

바.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의 폐단

D교사는 수업 내내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이 학생 전체를 생각했을 때 바람

직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은 학습 목표의 도달을 돕기 위해 계획된 활동들인데, 영어로 하는 교사의 지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정책이므로 따라야 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는 학생들이 자신이 영어를 더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영어시간에 원어민보조교사가 영어로 게임을 설명하고, 영어 시간에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습부진이 있는 학생에게는 오히려 답답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영어 수업에서도 교사가 우리말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날의 활동의 흐름이나 게임을 설명해주고, 학생들은 게임 등의 활동에서 영어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도 되는데 수업 내내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되는거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을 위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시범수업을 할 때나 교생지도를 할 때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도 ‘영어학습부진아들이 있는데 꼭 이래야 하나?’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경직된 수업인 것 같아요.

사.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영어교육의 필요성

D교사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교과서의 구성도 지적하였다.

영어 교과서의 챗트나 노래 등 내용이 정말 학생들에게 재미를 주지 못해요. 5~6학년은 거의 부르지도 않고 정말 재미없어 해요. 애들 반응이 너무 냉랭해요. 일률적으로 모든 학년에 같은 활동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활동내용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6학년 정도면 잘 알려진 팝송을 들려주거나 애니메이션에 있는 노래를 들려주며 필요한 문형이나 어휘와 친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노래를 외우지 않아도 흘러 들으면서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학년에 챗트와 동작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렵고 지겹다고 생각하는 원인에 교과서 내용도 한 몫 하는 것 같아요.

아. 학습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교사 편향의 우선의 교과 운영을 지양할 필요성

D교사는 국어나 수학처럼 담임교사가 교과를 지도하지 않고 복수의 교사가 한 학년의 영어 지도를 하기도 하는 체제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한다. 영어전담 교사 혹은 담임교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한 학년의 교육과정 중 가르칠 단원을 분배하여 가르치면서 학생들은 이 전 단원들을 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단원을 동시에 배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D교사는 이는 사교육 기관이라면 시장에서 도태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임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만약에 사교육인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면 그 학원에 보내겠어요? 당연히 안 보내죠.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교사, 원어민보조교사의 형태로 영어 관련 강사나 교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 영어 교과교육을 할 때 발견한 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영어전담 교사가 같은 학년을 가르친다고 할 때 가르치는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었는데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영어전담 교사(혹은 담임교사)는 서로 다른 단원을 가르치는 것이죠. 한 학년에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수업을 하고 영어전담 교사도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월요일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가르치는 1단원을 배우다가 수요일에는 영어전담 교사가 가르치는 3단원을 배우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과 내용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영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어전담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업 시수를 가르다보니 단원을 기준으로 수업 시수를 배분했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결국 앞 단원이 끝나지 않았는데 뒷 단원 수업이 시작되는 웃긴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죠. 어쩔 수가 없다는 대답이었어요. 다른 학교 상황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담임교사가 단독으로 하는 수업과 원어민보조교사와 팀티칭하는 수업을 단원으로 배분한다고 들었어요. 이를테면 월요일은 홀수단원, 수요일은 짝수단원 수업을 하는 셈이죠. 담임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계속 정보 공유나 수업연구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없이 수업을 연속성 있게 하게 되지만 실제 그러질 못하잖아요. 교육정책인 셈이지만 결국 수업이 따로 진행되는 거죠. 만약에 사교육인 학원에서 이런 식

으로 가르친다고 하면 그 학원에 보내겠어요? 당연히 안 보내죠.

D교사는 복수의 교사가 지도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의 용이성을 우선으로 고려한 교과 운영이 가능했던 사례를 제시한다.

1학기 때는 담임교사 주도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5학년 선생님 중 한 분이 원어 민보조교사와 의사소통을 하고 그 주 영어 스케줄을 짜고 동학년 선생님께서 전달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일주일 영어 3시간 중 2시간은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팀티칭, 1시간은 담임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원어민보조교사와 담임교사가 영어시간을 짝수단원, 홀수단원 같이 단원으로 배분하지 않고 차시로 배분했어요. 담임과 원어민이 계속 한 단원의 영어시간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체크업 시간(듣고 체크하고 평가하는 내용)과 3차시 쓰기 시간을 담임 단독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원어민과 함께 수업을 쪽 진행하며 단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처음 상황처럼 단원으로 수업 시수를 배분해 버리면 연속성이 완전히 끊기잖아요. 단원으로 배분하는 수업은 정말 이상했어요.

자. 영어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게 된 기회에 대한 감사

D교사는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여 평소에 영어 수업에 대해 느꼈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마움을 표했다.

이렇게 평소에 느꼈던 영어 수업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5. E교사의 관점과 견해

E교사는 총 교육 경력 22년의 40대 교사이다. 총 영어교육 경력은 19년이고 그 중 담임교사로서의 영어 지도 경력이 15년, 교과전담교사로서의 경력이 4년으로 교직 생활 내내 영어 지도를 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영어 교과 지도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에서도 영어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E교사는 초등영어교육의 도입기에는 이 교과도 초등 교사 전체가 가르쳐야할

교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전담교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초등영어교육이 좀 더 알차게 이루어지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어교육 도입기 때와 같이 전체 교사들을 영어 지도 인력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영어 교과는 초등교육에서 부수적 교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이 충실히 학습될 수 초등영어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초등영어교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담임교사가 영어를 지도하는 환경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E교사는 교육청 등의 영어교육 지원정책도 공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어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E교사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 교과 담당교사 관련

E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부수적인 여러 제도에 의존하게 된 것이 현재의 문제점들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영어 구사력의 한계나 영어에만 집중할 수 없는 초등교과 지도의 특성과 함께 교사 본인이 영어 교과 지도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교사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교육이 처음 도입될 때 갑자기 준비 없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어민보조교사 등의 여러 제도에 의존을 하게 되어 영어교육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영어는 우리에게서 외국어이고 그로 인한 언어 구사에 한계가 있잖아요. 또 초등 교사는 중등영어교사처럼 영어 한 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맡아서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영어를 배우지 않는 학년의 담임을 맡을 수도 있고, 원어민보조교사가 있어서 수업에서 담임의 역할을 줄일 수 있다든가 하는 이유로 인해 영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E교사는 초등영어교육의 도입기에는 영어도 모든 초등 교사가 가르쳐야 할 교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전담교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은 모순적이게도 영어교육의 역량이 있는 교사들조차 영어 교과를 지도할 기회가 없는 현실로 연결된다며 이런 상황에 변화가 올 것을 바라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 영어교육을 접할 때는 무조건 가르쳐야 한다는 흐름이 있었지만, 현재의 초등영어는 그냥 전담교과로 인식되던가, 담임이 가르쳐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나 시간이 더 필요한 교과로 인식되어서, 대부분 큰 학교에서 전담교과로 선정하기를 희망하는 교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베스트 영어교사도 물론 양성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베스트영어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영어는 베스트영어교사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영어가 전체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교과의 하나가 아니라 전담교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로 인해 영어교육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작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영어 교과가 정착은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있듯 앞으로도 변화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나마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영어 교과 지도 역량을 높이려 했던 영어교육 초기의 방향은 소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달라지고 있지만, E교사는 전시적인 정책보다 전체 교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처럼 열의를 가진 교사들이 교과연구회 등의 학교 밖 단체에서 영어교육을 위해 애쓰는 방식보다는 학교 안에서 다수의 교사들이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모든 교사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도 담임교사가 영어를 지도하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

예전에는 영어 연수의 목표는 단기간에 많은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요즘은 소수의 정예 멤버를 뽑아 장기적으로 영어교육에 투입하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교사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 1개월짜리 외국문화연수는 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문화연수라는 주제로 인해 오히려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와서도 부담이 없었는데 요즘은 5, 6명 정도로 구성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 연수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연수 후에는 영어를 파급하고 교육하는 부담이 좀 클 것 같아요. 교사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정책과도 병행이 되어야 해요. 장기 영어 연수를 통한 영어교사의 육성보다는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외국문화체험 연수 등의 단기성 연수를 확대하여 교사들이 영어교육에 필요한 문화체험이나 영어교육에 대

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해요. 교육청에서도 화상영어나 영어에 대한 투자도 보여주지식 보다는 영어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어 교과연구회원이신 교사들은 정말 영어교육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교사가 영어 교과연구회원은 아니잖아요. 몇몇 분의 열정 속에 주도되는 영어교육보다는 좀 더 많은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교사들의 관심 아래 두기 위해서라도 전담교과가 아니라 담임교사가 영어수준도 조율하고 격려하고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해요.

E교사는 대부분의 젊은 교사들은 학부 과정에서 초등영어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도 충분히 영어를 잘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교사 인력의 추이가 달라지면서 영어교육 정책도 그에 따라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다음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대했다.

만약에 교직 경력에 영어를 가르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교사의 경우라도, 지금 현직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 교사는 영어를 잘 가르치실 수 있을 거예요. 20년차 이상의 경력의 교사인 경우에는 대학 학부 과정에서 초등영어교육을 이수하신 교사는 없어요. 다만 초등영어교육이 들어오고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니까 연수를 통해서 영어교육을 접하신 분들이에요.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는 거의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대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좋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우리 같은 20년 이상의 경력 교사들이 경험했던 영어정책은 아마 변할지도 몰라요. 다음에는 어떤 영어정책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영어 교과 지도역량을 갖춘 교사 인력이 풍부한 상황인 지금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인 교사들이 영어교육의 주체가 되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원어민교사에 대한 의존도도 점차 줄여야하겠고요. 원어민교사가 꼭 필요한 경우 (발음, 문화)를 제외하고는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리드를 우리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분담을 잘 해야겠죠. 현재는 영어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보조교사나 또는 부진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나 생활지도에 그치고 있는 현상은 안타까워요.

나. 영어 교과는 초등교육에서 부수적 교과로 인식되고 있음

E교사는 초등교육에서 영어는 비중이 크지 않은 부수적 교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 우선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과 시수가 적은 점을 들었다.

예전에 2015개정 교육과정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연수는 오전에는 공통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오후에는 참여 교사가 각자 초등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도록 진행되었어요. 당시 초등교육과정상 영어는 주 2시간의 수업 시수였고, 국어는 주 6시간의 수업 시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시수가 많았던 국어 연수를 선택했어요. 그 때 다른 선생님이 저에게 왜 영어 연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어서인지 내가 영어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니까 학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국어 연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국어시간 비중이 제일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어 교육과정의 흐름을 잘 알아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목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 영어는 초등교육에서 너무나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E교사는 초등 교사들에게 있어 국어와 수학과 그 외 교과는 지도 부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어와 수학은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능력이 안정적으로 발달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여 학습 부진이 생기지 않는 것까지 신경을 써 지도를 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은 교과서 위주로 지도를 하고 지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E교사는 국어와 수학에 비하여 다른 교과를 부수적 교과로 칭하였는데 교사들에게 있어 영어도 그러한 교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영어 교과를 가르치게 되면 가르치기는

하나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까지 교사들이 하는 일이 많지 않고, 학습 부진이 생겨도 국어나 수학교과에서처럼 보충지도를 하여 끌어 올려야한다는 의식도 약하다고 하였다.

아무튼 처음에 영어가 도입되었을 때는 굳이 왜 영어를 가르쳐야하는지 반발이 심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반응은 없어졌죠. 요즘 주위의 선생님과 이야기해 봐도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크게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아요. 다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하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민을 덜 하게 되죠. 그리고 국어나 수학은 모든 교과들의 기본이잖아요. 국어, 수학은 집중적으로 지도하지만 그 외의 기타 교과들은 선생님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교과서 위주로 지도하는데 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도 국어, 수학을 빼고 나머지 과목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다른 과목에서 이를테면 국어에서 부진이 발생한다던가, 수학에서 부진이 발생하면 일단은 보충을 하는데 영어는 부수적인 교과로 인식이 되어서 바로 보충을 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다.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하도록 초등영어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E교사는 국어와 수학 교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 교과에서도 제학년 도달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를 보충 지도하여 각 학년의 성취 수준을 만족시키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초등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중학교 과정으로 진입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줘야 하는데 초등영어교육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성찰하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등영어교육이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국어나 수학 처럼 영어도 담임교사가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주요 교과들은 제학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보충학습을 하고 있는데, 영어도 그런 방식으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영어는 공교육에서 교육해야 하는데 각 학년에서 선생님들이 교과수준만큼은 교육을 하고 진급시켜야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졸업 전에 6학년 수준의 영어는 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영어전담을 하면서 3~6학년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본문을 다 외우도록 가르쳤어요. 제 생각에는 이정도만 해도 중학교 진학을 하고 영어공부를 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대화 속에 문법과 단어, 어휘가 있어서 그 정도의 공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영어교육도 학년마다 그 기본만 교사들이 해주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예를 들면 구구단을 못 외우면 다음 곱셈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구구단은 무조건 외우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살펴보면 고학년인데도 알파벳을 쓰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전담교사는 한정된 시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담임교사에게 그런 상황을 알릴 뿐 더 이상의 지도는 하지 못해요. 아마 담임교사도 영어 영역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예요. 베스트교사 양성과 영어 교과전담이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어전담, 수학전담이 없듯이 이런 정책이 선생님들에게서 영어교육에 대한 생각과 경험의 기회를 없애는 것 같아요.

라. 학생들이 충실히 초등영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

E교사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데 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교과목의 교육을 총괄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영어 교과목에서도 학습 부진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려면 담임교사가 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어 능력이 발달하려면 외국어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반해 영어 교과에 배정된 시수는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담임교사는 학급 운영을 하면서 교과시간 이외의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시수의 부족을 보완할 수도 있어 초등영어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큼을 역설하였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교사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영어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초등학교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만약 내가 담임을 맡았다면 나는 영어에 관심이 많고 영어는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해

서 어떤 활동, 이를테면 학급 특색 활동을 계획할 때는 영어에 관한 활동을 계획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어 자체가 언어여서 자꾸 해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중학교와도 연결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전담교사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학년의 교사임에도 학생들이 국어나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영어는 아예 보충 지도 대상교과에서 제외해요. 국어나 수학도 못하는데 영어까지 챙길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 과목에 대한 지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저는 영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영어학습 부진학생을 챙기려고 해요. 아무리 담임의 능력이 안 된다고 해도 영어부진아가 발생하는데도 한 해를 영어 보충지도를 안하고 지나가게 되면 학생들이 다음 해에도 영어 교과를 학습해야 하는데 학습부진이 누적되는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최소한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구별은 해야 하는데 말이죠. 영어는 담임교사의 관심과 의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국어의 경우는 일단 우리말이어서 항상 사용하고, 수학의 경우는 어떤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학습할 수 없다는 것을 교사가 인지하고 있죠.

우스갯소리로 초등교육에서 영어의 중요순위가 뒤쪽에 있지만 당장 중등교육에서는 중요도가 앞으로 오는 교과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국어가 도구 교과이듯이 영어도 언어교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구 교과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져야 하는 교과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학년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을 달성하고 진급을 시켜야한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전담교과로 원하는 교과 중 하나가 영어인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또 담임교사가 말더라도 원어민에게 수업 주도권을 쥐버리고 수업의 보조 역할에 그친다면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고민은 중단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에서는 영어가 별로 존재감 없다고 생각되다가 중학교 가서 바로 ‘국, 영, 수’로서 영어의 중요도가 너무나도 크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중학교 영어에 진입을 하면서도 그리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교과서의 본문에 나와 있는 대화문만 외워도 그 안에 있는 어휘, 문법 등이면 중학교 영어진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럼 결론은 초등학교에서 철저히 영어교육을 해주면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교육 2~3시간만 해서 아이들에게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그와 함께 틈새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이때 담임교사의 관심이 있어야 이런 틈새교육을 통해서라도 영어교육이 실시되면 좋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영어에 젓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영어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는 것이 걱정되는 거죠.

마. 교육청 등의 영어교육 지원정책도 공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어 학생 들 소수가 아닌 다수에 적용되어야

E교사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의 향상을 돕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도 학교 교육과 병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부모의 관심도나 가정에 학습을 위한 기기의 부재 등의 원인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 좀 더 풍부한 영어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에 대한 동력은 교사의 관심에 있다고 말한다.

들엄시민 같은 영어정책도 학교공교육과 함께 병행 할 수 있도록 기획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들엄시민의 긍정적인 면을 공교육에서 함께 해보자는 거죠.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들엄시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의 경우는 도서지역에 대한 혜택으로 컴퓨터실에서 개인별로 영어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가 주어지고 연중 각자 자기의 수준에 맞는 영어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아침활동으로 컴퓨터실에서 영어듣기를 하게 하죠. 제가 맡는 4학년의 경우는 수준 차가 있기는 하지만 1년 내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최소한 듣기 실력이라고 늘었다고 생각해요. 옆 반의 경우는 국어와 수학 보충을 한다고 해서 이런 영어듣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최소한 아침활동에라도 영어듣기를 하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죠. 저도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지도하는 활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각자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개별학습이 되었어요. 그게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담임교사의 준비 시간과 추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었지만 학교 전체적으로 운영하던 아침활동이 아무래도 담임교사에게는 부담이 되었어요. 담임교사가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꾸준한 자극이 되는 것이 있어야 결과물도 있는 거죠. 또, 부모의 관심도 영향을 끼치죠.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도 부모님이 인증을 해주어야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정에 컴퓨터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들엄시민을 가정에만 맡겼을 때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할

수 있다고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학교에서 아침활동시간으로 운영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10분이든, 20분이든 참여할 수 있는거죠. 그 이외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는지는 파악이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학교 안에서 하는 영어교육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극을 주고 영향을 끼치지만 학교 밖에서 하는 영어교육은 정책이나 가정의 관심도에 의해 결정되어서 교사들의 영향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 밖에서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학교 안에서 그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해요. 그 뭔가가 교사의 관심이죠.

V. 연구 결과

1. 연구 문제 1: 초등영어교육의 정착 여부에 대한 다섯 교사들의 인식

20여년 동안 이루어진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지켜본 다섯 교사들 중 한 명은 초등영어교육이 정착되었다고 답했으며 네 명은 정착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A교사는 초등영어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교사 양성 기관에서 영어 교과 지도 역량을 갖춘 교사들이 꾸준히 배출되어 왔고, 영어 교과와 관련된 연수가 축소되는 현상이 곧 이들이 영어 교과 지도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양성기관에서 영어 교과지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고경력 교사들이라도 초등영어를 가르치는데 문제는 없으며, 영어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그것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초등영어교육은 초기의 혼란기를 거쳐 정착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네 명의 교사들은 다양한 이유로 초등영어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정착 여부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과 달리 다섯 교사들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견해는 영어 교과지도 담당교사제도,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교육과정과 교수법, 교사간 협의와 정보 및 의견교환 측면에서 초등영어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영어 교과지도 담당교사제도

1) 학습자에게 알맞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담임교사 지도체제로 운영되지 않음

본 연구의 참여자인 교사 A, B, C, D, E는 모두 영어 교과를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학생 수준 파악의 용이성과 학력을 높이기 위한 조처의 용이성 등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을 들어 담임교사들이 영어 교과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전담교사 중심의 운영 체제는 이러한 효율적인 교육의 실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다섯 교사 중 A교사는 담임교사 지도체제를 지지하는 동시에 자신도 영어 교과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신보다 영어교육역량을 더 갖춘 교사와 자신의 반까지 지도를 하는 교환 수업을 했었고 이의 장점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담임교사 지도체제는 이러한 교환수업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의미의 범위를 정하겠다.

담임교사로서 3년간의 영어교육 경력을 가진 A교사는 한 근무 학교에서 교사들의 협의를 통해 고학년 학생에게서 수준 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교육과정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담임교사들이 영어 교과를 지도하였고 그 결과 교육 효과가 높일 수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담임교사들이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쳤던 것이다.

담임교사로서 3년과 전담교사로서 9년의 영어교육 경력을 가진 B교사도 담임으로서 영어를 가르칠 때 학생들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담임교사로 영어를 가르칠 때의 장점이 많았다고 하였다.

담임교사로서 5년, 전담교사로서 4년의 교육 경력을 가진 C교사는 중요한 것은 학습자를 파악하고 그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을 하려면 전담교사보다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D교사는 담임교사로서 2년 그리고 전담교사로서 1년의 영어교육 경력을 갖고 있다. D교사는 전담교사로 가르친 1년이 영어 교과 지도에 대한 전문성 신장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교과전담지도제가 영어 교과가 초등교육과정에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초등영어교육이 잘되려면 국어나 수학과 같이 어느 교사나 영어를 가르쳐야하며 담임교사로서도 계속 영어 교과를 지도하면 영어 교과지도 역량 또한 신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D교사는 또한 영어 교과 부진 학생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도 담임교사 지도체제에서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하였다.

담임교사로서 15년, 전담교사로서 4년의 영어교육 경력을 갖고 있는 E교사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교과목의 교육을 총괄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하면서 학습 부진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려면 학생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관심과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2) 소수 교사가 지도하는 체제에서 이 교과에 대한 다수 교사들이 관심이 낮아지게 되고 다수 교사들의 교과지도 전문성이 신장되기 어려움

B교사와 E교사는 영어교육의 도입기에는 영어도 초등 교사들 전체가 가르쳐야 할 교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사 연수도 다수를 대상을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담당교사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교과전담제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교사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의 약화로 이어졌음을 지적하였다. 교사 B, C, D, E에 따르면 이와 같이 소수의 교사들이 교과 지도를 담당하는 교과전담제는 다수 교사들이 영어 교과목을 지도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영어 교과목에 대한 관심의 희박 및 영어 교수 단절 기간의 장기화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영어 지도 능력의 저하로 연결되는가 하면 모순적이게도 영어교육의 역량이 있는 교사들이나 영어 교과목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들도 영어 교과목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초등학생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 즉, 담임교사가 영어 교과목을 지도하는 체제라면 지도 경험과 경력이 지속적으로 쌓이며 자연스럽게 지도 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나, 교과전담제 위주로 운영되어 전담을 맡지 않는 다수의 교사들에게서 지속적인 교과지도를 통해 지도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도 역량의 부실로 이어지고, 상황에 따라 영어 교과목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다른 교과목을 지도하는 것과 같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쉽고, 교사들이 효율적인 교육을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교수 결과도 그만큼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영어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되는 것이다.

3)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B, C, D, E교사들은 초등 교사들의 영어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도입한 보조교사 정책들이 오히려 영어 교과 지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음에도 주의를 환기시킨다. 원칙적으로는 초등 교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 교사가 주가 되어 교과를 지도하고 원어민 교사는 이를 보조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협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원어민보조교사에게 수업을 맡기고 한국인 교사는 학생 관리를 맡거나 학생들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해를 돕는 원어민보조교사의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초등 교사가 보조교사를 보조하는 상황이 된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은 영어 교과지도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어 교사들의 영어 교과지도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지도 역량 개발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원어민보조교사 뿐만 아니라 영어회화전문강사 또한 초등영어교육을 보조한다는 취지하에 투입되었으나 이 또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하나의 교과를 초등 교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서 배우는 것도 혼란스럽지만, 여러 교사가 한 학년의 교과지도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교사들의 사정이나 편의에 따른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장애를 초래하는 교육환경에 놓이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지적되었다. D교사는 담임이 지도하는 다른 교과들과 달리 전담교사 혹은 담임교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영어 교과를 지도하는 현행 체제에서 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나눠 지도하면서 학생들은 선행 단원과 다음 단원을 동시에 배우게 되는 상황도 있음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를 들면 전담교사 혹은 담임교사는 1, 4, 7단원을, 원어민보조교사는 2, 5, 8단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3, 6, 9단원의 지도하기로 함으로써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한 단원이 끝나면 다음 단원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1, 2, 3 단원의 내용을 동시에 배우고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 교사들은 초등영어교육을 보조하고자 도입된 정책들이 교육과정의 운영이 불안정하게 이뤄지는 환경이 되고 있으며 이는 영어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C, D, E 교사들은 영어 교과 지도에 있어서 각 학년의 성취 수준을 달성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켜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들은 모두 국어와 수학 교과의 지도와 영어 교과의 지도 방식을 비교하며 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을 주요 교과로 여기고 이 과목들의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초등교육과정에서 국어와 수학은 학년의 성취 수준을 갖추고 상급학년으로 진급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이 노력을 경주하는데 반해 영어는 그러한 인식이 희박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노력 또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어와 수학은 학습 부진에 대한 보충 지도를 꾸준히 한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 곱셈을 할 수 있으려면 구구단 암기가 선행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한 교사의 관리와 보충지도가 이루어지는 반면 영어 교과에서는 영어 교과가 시작되는 학년인 3학년에서 숙지되어야 할 알파벳 대소문자의 구별도 되지 않는 상태로 6학년에까지 진급하는 경우가 있어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이들 교사들은 초등교육과정에서 각 학년의 성취 수준만 갖추더라도 중학교 영어를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강조하며 영어도 국어와 수학과 함께 주요 교과라고 말은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관리에 있어서는 국어와 수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관리하며 학습 부진이 발생하거나 누적되지 않도록 교사들이 역할을 다하는 반면 영어는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런 점에서 그런 관리의 필요성이 거론되지 않는 타 교과들처럼 운영되고 있어 C교사와 E교사는 영어가 주요교과가 아닌 주변교과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아울러 세 교사는 모두 상급학교인 중학교부터 영어 교과는 중요성의 비중이 상당하여 그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따라서 초등교육과정에서 교과서의 수준만큼을 교육하고 상급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하여 C교사는 각 단원이 핵심 표현을 자신의 경험에 대입시켜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반복하여 되새기기의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였고 E교사는 각 단원의 본문만 외우도록 관리를 하는 방법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정도의 관리만 해주어도 중학교 영어를 학습하는 준비 단계로 충분

하다는 점을 두 교사는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담교사 중심 운영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담교사가 이러한 관리나 학습 부진에 대한 보충지도를 하기는 어려우며, 전담교사가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알리더라도 자신이 지도하지 않는 영어 교과에서의 학습 부진을 부수적으로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 공교육으로서 초등영어교육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영포자(영어포기자)’라는 표현이 입에 오르내리는 현실에 있음을 세 교사들은 안타까워하였다. E교사는 그러한 점에서 베스트 교사의 양성이나 영어 교과 전담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국어전담이나 수학전담이 없이 초등교사라면 누구나 이 교과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담임으로서 지도하듯이 영어 교과 또한 그런 체제로 운영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면에는 초등영어교육이 학생들의 제학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는 초등영어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다. 교육과정 및 교수법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에 있어서도 초등영어교육은 더 갖춰나가야 함을 암시하거나 지적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 다섯 명 중 유일하게 초등영어교육이 정착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던 A교사와 정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가진 C교사에게서 교육과정 구성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A교사는 교사의 영어 교과 지도의 전문성에 관계없이 영어 학력에 대한 학생간의 수준 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교육과정상의 문제에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었고 사교육에서 중시하는 파닉스 과정이 교육과정에 없어 학생들이 단어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근무 학교에서는 교사들끼리 수업 연구를 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학년인 3학년에서 학년초 2~3개월을 알파벳과 파닉스 교육을 함으로써 영어교육을 진행해나가기 위한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을 교사들 스스로 하였던 경우를 언급하였다. C교사도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것처럼 파닉스를 처

음에 익히면 좋겠다고 하여 교육과정상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교사도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C교사와 D교사는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고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였다. C교사는 영어 교과가 교과로서 기본적인 체계나 틀은 있는 상태이나 모든 교사들이 알고 지도할 만한 지도법도 공유되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 효과를 담보하는 영어교육이 되도록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누가 가르치더라도 좋은 교육이 될 만한 틀을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여 영어교육이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태었다. D교사도 다른 교과에 비해 교수법의 개발이나 공유 측면에서 영어 교과는 많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원어민 교사와 팀티칭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교육 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그저 교사들을 그 환경으로 내몰 뿐 그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고 지금도 원어민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다른 교과의 경우 단원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교수법에 대해 연수 등을 통해 아동 배치 방법들까지 고려한 교수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영어 교과는 그런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C교사는 나름의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개발하였고 D교사는 연수 등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상태로 대응 방법은 다르나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방법에 대한 안내나 지원이 모자란 상태라는 지적에 있어서는 뜻이 같다고 하겠다.

라. 교사간 협의와 정보 및 의견교환

A, C, D교사들은 교사들끼리의 협의를 통한 영어교육의 효과를 경험했거나 좀 더 많은 교사들과 효과적인 영어교육이나 영어 교수 방법에 대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바람이 컸다. 이와 같이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 또한 초등영어교육이 정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A교사는 고학년에서 수준 차 문제와 교육과정의 미흡함을 교사들의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실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

게 도움이 되는 실험적인 영어교육을 행한 경험이 있다. A교사는 이에 대해 열정적으로 길게 얘기하였다. 기존의 교과서에 제시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고학년에서의 수준 차를 줄이기 위해 3학년 때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여러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업 협의를 통해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펼쳐나갈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보람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영어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방법을 모색해가는 자리가 없음을 C교사와 D교사는 아쉬워하였다. C교사는 교사끼리 모여 효과적인 영어교육이나 영어 교수 방법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D교사는 많은 영역에서 연수나 교사들 모임이 운영되는데 교사의 영어공부나 영어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영어 교과가 누구나 가르치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을 가르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담임교사지도 체제로 운영될 때 활성화될 것이어서 담임교사지도 체제가 바람직한 또 하나의 이유로 보태지고 있다. E교사도 영어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교사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담교과가 아닌 담임교사 지도를 지지한다고 하였는데 모든 교사들이 관심을 가질 때 초등영어교육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갈 것이다.

2. 연구 문제 2: 초등영어교육의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변화

앞서 연구 문제 1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보았듯이, 연구 참여 교사 다섯 명은 초등영어교육이 정착 여부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하는 입장 차나 영어교육 경력의 장단 여부에 상관없이 학습자들이 영어의 기초를 충실히 다지고 상급 학교로 진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초등영어교육의 여러 요소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 문제 2에서는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까지의 초등영어교육의 여건들을 어떻게 달리함으로써 초등영어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지 그리하여 초등영어교육이 초등교육과정으로 정착되었다고 답할 교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인지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통해 알아보겠다.

가. 담임교사제로 교과 지도 교사제 전환

1) 학습자들의 배움을 촉진하는 영어교육 환경으로서 담임교사 영어 교과 지도제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이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충실히 익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초등영어교육이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교과지도교사 제도를 지금까지의 전담교사 중심에서 담임교사 중심제로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교사들은 모두 학습자에게 최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담임교사임을 강조하였다. 교사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담임교사제로의 전환은 지금까지 초등영어교육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축소하고 좀 더 질 높고 활기찬 초등영어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사들은 초등영어교육의 도입기에는 초등 교사 누구나가 영어 교과를 지도할 것으로 즉 담임교사가 지도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막상 실행은 전담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더하여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까지 지도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폐단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전담교사제에서는 주로 전담교사들만이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어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절대다수의 교사들은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고 하였다. 영어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들이 경험을 통한 영어교육 지도 역량이 증진되는 기회를 갖기 어려워 졌고 이는 교사들의 영어 교과 지도 능력의 저하로 이어졌다. 그나마 영어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대학원 과정을 밟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지도 역량을 강화하며 영어 교과를 지도하기를 희망하지만 이런 교사들이 영어 교과를 지도할 기회도 막아버리게 된다. 다수 교사들이 영어 교과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는 타 교과와 관련하여 흔히 있게 되는 동료 교사끼리의 지도 경험이나 의견 및 정보의 공유나 지도를 위한 협의 등을 통한 연찬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담임교사 중심 지도 체제가 아닌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협력 수업에서 원어민보조교사가 교수자로서 주된 역할을 하고 한국인 교사가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나,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까지 다수의 교수자가 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나누어 가르치는 경우 동시에 여러 단원을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도 불합리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담임교사 지도제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사라지게 된다. 누구나 영어 교과를 지도하게 되므로 교과 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효과적인 영어교육의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영어 교과 지도를 희망하면서도 가르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교사들이 지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초등영어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려면 학습자들이 제학년의 제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들이 보조해줘야 하는데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담임교사제의 환경에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담임교사제로의 전환은 초등영어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초등영어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담당교사 제도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교사들의 견해로는 베스트영어교사제와 같은 제도는 없앨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영어 교과 지도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일부 연구 참여 교사들은 정규 교과 수업시간과 활동 외에도 교사의 재량으로 추가적인 시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아침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동화책 읽기, 팝송 부르기, 영어방송 듣기 등의 활동으로 영어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활동들을 한 예를 언급하였고 이를 영어 교과의 시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보완책으로 삼는 교사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초등 교사라면 저경력 교사든 고경력 교사든 영어 교과를 지도할 능력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교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의 특성 및 교과 지도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학습관리를 하는 교환 지도를 통해 만족할 만한 교육 효과를 거둔 경험을 언급하며 영어 교과 지도를 좀 더 선호하거나 지도 능력을 더 갖춘 교사와의 교환 지도를 긍정적인 방안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담임교사제로 전환을 하는 경우, 여러 교사들이 지적하였다시피 교사들이 영어 교과 담당을 회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협력 수업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나. 원어민보조교사 제도 운영에 변화 필요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원어민보조교사 제도가 수업 운영의 주가 되어야 할 초등 교사들이 원어민보조교사의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교사들이 원어민보조교사와 수업 협의를 영어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 교사는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협력 수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들에 대한 안내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원어민보조교사가 수업을 알아서 하는 편법적 운영이 지속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 교사는, 한 학교에서 일부 학년을 전담교사가 담당하면 다른 학년들은 담임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팀티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교사들이 영어 전담 교사 없이 각 교사들이 담임으로서 단독수업을 하는 쪽을 택했던 사례를 들어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팀티칭 상황을 환영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어민보조교사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초등 교사들에게 수업 협의의 부담을 전적으로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 교사는 자신이 수업 지도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원어민보조교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효과를 보았던 사례에 대해 자세히 밝힌 바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성공적 협력 수업 사례를 모아 자료집을 제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 교사들은 원어민보조교사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원어민과 학교생활을 하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며,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호기심과 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활동에 대한 기대 등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는 장치로서의 의미 등을 들어 원어민보조교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초등영어 도입기에 원어민보조교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던 이유들이 지금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므로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초등 교사에 대한 연수 등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최근에는 원어민을 접하는 기회가 예전처럼 드문 것이 아니며

원어민의 발음에 노출되고 이를 따라 하기 위한 목적은 학습 자료 등을 이용해도 되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원어민보조교사를 쓰는 것보다 초등 교사들의 영어 교과 지도역량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초등영어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원어민보조교사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초등 교사가 영어 교과를 주도적으로 지도하는 정상적인 교육환경 속에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증진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가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20년 넘게 이루어진 초등영어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부정적 답변을 한 이유 중 그 중요성을 특히 역설한 것이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였다. 이들은 초등영어교육이 상급학교인 중학교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초 학력을 쌓아줄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년의 성취 수준에 도달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등영어교육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왔음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국어와 수학은 학습 부진이 있게 되면 보충학습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관리를 하여 성취 수준을 갖추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어 교과에서는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학습 부진이 누적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준 차가 벌어지게 되며 중학교 영어를 정상적으로 학습하기 어려워지는 ‘영어포기자’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초등영어교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한 초등영어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한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초등영어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를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학력 측정 체계를 갖추고 학습 부진에 대한 보충 학습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에 더 적절한 지도형태인 담임교사 지도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라. 교육과정, 교수법 및 교재 개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문해력의 기초가 되는 파닉스 학습 단계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 교사의 지적을 제외하고는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고 한 교사는 초등영어교육과정은 20여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큰 변화가 없었고 초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단계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짜여있다고 평가하였다. 한 교사는 영어학습의 기초가 되는 파닉스 학습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던 예를 들었다.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을 하여 학생들의 문해력 발달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갖춰줄 의무를 지도교사나 학교가 따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에 이 부분이 보완됨으로써 교사나 학교에 따라 이 필수적인 부분이 다뤄지거나 다뤄지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후속 학습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수법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 효과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안내가 모자라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교사는 가르치는 교사에 따라 교육 효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어느 교사가 가르치든 만족할 만한 교육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교수방법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교수법들은 효율적인 초등영어교육을 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초등영어교육의 정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방법 및 교재와 연계하여 학습효과는 적고 단순히 재미 효과에 치중하는 게임 위주의 활동을 지양할 필요와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3학년이나 6학년이나 일률적인 요소로 교과서의 활동을 구성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도 교육 효과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 교육 효과를 내는 다양한 창의적 교수법을 장려하는 장학

본 연구에서 한 교사는 정형화된 교육방식에 따른 기준에 입각하여 교사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법을 부정하는 장학 사례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장학은 제학년 제학력을 갖춰주기 위해 교사가 개발하고 학생들의 언어 능

력 신장의 효과로 입증된 효과적인 교수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현장교육에 기초한 교수법 개발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고 효과적인 교수법이 확산 공유되는 것을 막는 결과가 되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의 확연한 능력 신장으로 확인되는 이 교수법의 영향력에 대한 확신에 반하여 주변에 권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장학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교수법을 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개발된 교육 효과가 뚜렷한 교수법을 정형화된 교수법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앞서 제기된 효과적인 교수법의 개발과 공유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교육 효과로 이어지는 창의적 교수법의 개발과 공유를 장려하는 장학은 항시적으로 중요하고, 믿고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의 부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하겠다.

VI.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섯 명의 교육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들의 견해에 기초하여 이들이 초등영어 교과가 초등교육과정에 정착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들을 달리하여 정착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한 명의 교사는 정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네 명의 교사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착 여부에 대한 응답은 달랐으나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일치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서두부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초등영어교육 20년의 역사를 지켜본 교사들의 견해를 듣는 데에서 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초등영어교육이 운영되어온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상당부분 일관된 견해들을 종합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의 연구 주제에 대한 이전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소규모의 탐험적 성격의 정성적 연구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견해는 이들의 견해에 국한된 것인가 혹은 한국의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것인가?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초등영어교육과 관련된 여러 현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안 사항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던 영어 교과 지도교사를 담임교사제로 전환했을 때 초등영어교육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와 관련한 연구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고경희, 2005; 김민정, 안경자, 2017; 김영철, 2008; 박선호, 2017; 박약우, 1998; 신은경, 안경자 2019). 이들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강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담임교사 영어 교과 지도제는 교과전담제와 비교하여 학습자들의 배움을 촉진하는 영어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이 크다는 것은 학습자들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알맞은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 학습 부진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인 점, 영어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임교사의 재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존 시수 외에 추가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점, 학생들과 일상을 같이함으로써 영어 활용의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교사 인력 면에서 담임교사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초등 교사양성과정에서 초등영어 교과 지도를 위한 교육을 받은 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수치를 통한 객관적 사실(고경희, 2005; 박약우, 1998)이나 현장 초등 교사들의 견해(박선호, 2017)로 이러한 견해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한 참여자는 영어 교과 지도 역량은 초등 교사 임용고사에서 1차 필기고사로 평가 받는 여타 교과와 달리 2차에서 수업 실행 능력 및 영어 교과 지도에 대한 내용과 일반 회화적인 능력을 평가 받는 절차가 있어 영어 수업역량의 기초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박선호(2017)의 연구에서도 이 점에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또한 영어 지도를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영어 교과를 담임으로서 담당하게 되었을 때 별문제 없이 지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되거나 영어 교과 지도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갖는 사례에 대한 보고나(김민정 2017) 양성과정을 포함한 학창 시절에는 영어 관련 과목이 자신이 최대로 취약한 부분으로 여겼고 영어 교과 지도는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이나 첫 발령지에서 영어 교과지도를 피할 수 없었고 이러한 출발이 결국은 영어 교과 지도 분야에서 일반교사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교사의 사례(현규혜, 2017)등은 누구나 영어 교과를 가르치게 되면 초등 교사들의 영어 교과 지도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고양될 수밖에 없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가 뒷받침되는 예들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 따르면 초등 교사 중에는 영어 교과지도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더라도 맡겨지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경력에 관계없이 초등 교사들은 초등영어 교과 지도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력들이 담임으로서 일상적으로 영어 교과를 지도하게 된다면 지도역량은 더욱 증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초등영어교육과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초등영어교육이 정착 혹은 안착되었다는 인식과도 연결되는 주요 변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교사가 언급했듯이 담임교사담당제도

경직된 운영보다는 좀 더 큰 교육 효과를 우선의 가치로 하여 교환교사제 등을 활용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지적 하듯이 교과전담교사 지도제는 영어 교과를 지도하기 희망하여도 가르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영어 교과 지도를 위한 대학원 과정 이수 등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 인력마저도 지도 기회를 갖지 못해 전문성이 사장되는 경우도 많은 것은 (박선호 2017; 이효숙, 고경희 2012)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 영어 교과 지도를 위해 2~3년의 교육과정을 밟는 전국 교육대학 졸업생들과 영어 교과를 심화전공으로 하여 4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 인력들의 다수는 지도 기회를 갖지 못하여 이 훈련과정에서 쌓인 역량이 사장되는 것을 감안하면 규모가 막대한 인력 손실에 이른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과전담교사제가 갖는 문제점들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은 담임교사 지도제를 주축으로 자생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그 외 보조책으로 도입된 원어민보조교사 혹은 영어회화전문강사제가 결과적으로 초등영어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김영민, 2010; 우상도 2012) 또한 담임교사 지도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하겠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초등영어교육을 행함에 있어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영어 교과가 국어와 수학 교과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이영주, 2012; 이제영, 장경숙, 2017) 영어 교과의 학업 성취도를 국어, 수학과 함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국어나 수학 교과와 달리 영어 교과는 학생들의 학력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는 중학교 영어에 대한 기초과정으로서 학력 부진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초등영어 교육이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영어 교과의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를 담보할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음은 이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한 학계와 교육계의 관심이 촉구된다 하겠다.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 교사 중 두 교사가 지금까지의 국가교육과정에서 음철법 지도 부분이 빠져있거나 미흡하여 교사들의 협의

하에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운영했거나 교사 개인 차원에서 이를 보완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음철법 지도에 대한 필요성과 지도 사례 및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초등영어교육의 초창기부터 꾸준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김순도 2001, 김영숙, 2016; 박수정 외 2인, 2017; 윤경진, 이재근, 2017; 정평강, 최나리 2019; 정현경, 2001; 조정희, 2002) 국가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교사가 지도하든지 그 결과가 효과적인 교수법의 부재 및 교수법에 대한 안내 부족 또한 초등영어교육이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지적되었다. 지금까지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수 방법은 주요 주제 분야이고 초등영어 관련 연구에서도 초등영어교육의 도입기에서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들의 지적은 정보 공유와 확산 차원의 문제로 보인다. 특히 다른 교과와 달리 교과전담제 중심 운영 체제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다수의 교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교수법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될 것이고 정보 공유나 확산 또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 또한 이 문제를 가중시켜 온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담임교사지도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교사들의 교수법 관련 관심과 필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두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수 등을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이 될 것이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교사들이 인정하고 공유하는 교수 방법이 없다는, 한 참여 교사의 지적은 이 교사가 제학년 제학년 갖추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온 경우여서 특히 제학년 제학년 갖추기의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의 교수법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충실한 초등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어민보조교사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지적이 교육 현장의 일반적 고충과 고민임은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협력 수업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연구 중에는 원어민보조교사와 협력 수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향의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박선호, 금선숙, 2011; 이상도, 2012), 본 연구의 한 참여자의 지적과 같이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초등 교사들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있다. 특히 김정렬(2011)은 원어민보조교사를 대체할

한국인 교사 인력의 존재에 주목하도록 하고 이미 그러한 정책 기초를 갖고 현장 교육에 반영하는 광역시 사례들을 들고 있으며, 장모나와 김희진(2019)은 그러한 인력을 통한 영어교육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원어민교사들의 수업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원어민보조교사 제도에 관련해서도 다른 견해들을 종합하여 초등영어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인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영어교육의 초기에서부터 제기되었던 원어민보조교사 제도의 문제점들은 20여년 뒤인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 또한 안정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영어 교과 지도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 간 협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고 교육 효과보다는 정형적 교수법 적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장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들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송미사와 정혜영(2015)은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간 공식적, 비공식적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강후동(2007)은 초등영어 교과지도 전문성 증진을 위한 장학 활동이 미미함을 지적하고 교사들은 장학 유형 중 동료장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회적, 일방적, 위계적 장학에서 교사의 필요와 의뢰에 따른 특히 교사 간 수업컨설팅으로 경향이 바뀌어 왔고 이러한 형태의 전문성 개발의 효과와 장점을 보고한 연구들이 많은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김혜련, 부경순 2007; 박현진, 안경자, 2019; 이윤, 2008; 이은주, 정혜영 2016; 최주영, 심창용, 2012).

Ⅷ. 연구를 마치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 교과가 초등교육과정에 정규 교과로 도입되는 시기부터 역사를 지켜봐온 교육 경력 22년이 넘는 교사들 5명을 대상으로 초등영어 교육이 정착되었다고 보는지 묻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어떤 점들을 달리하는 것이 정착단계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본 연구이다. 한 연구 참여자는 정착된 것으로 나머지 네 명의 참여자들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 답변의 차이에 관계없이 연구 참여자 교사들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교사들은 모두 담임교사 지도제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를 강조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행해져온 교과전담 중심 지도제가 초등영어교육이 정착되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으며, 영어 교과와 관련하여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나 실행방안 등이 자리 잡아 있지 않은 그간의 실태를 조명하는 지적이다. 교사들은 또한 교육과정의 개선, 효과적인 교수법의 개발과 확산, 원어민보조교사의 필요성 및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한 검토, 교사 간 협의와 정보공유 및 교육 효과가 뚜렷한 창의적 교수법을 장려하는 장학 등도 초등영어교육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요인들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 요인들에 대해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견해들이 연구 참여자 다섯 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초등영어교육과 관련된 좀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고사에 영어는 국어, 수학 교과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국어나 수학 교과와 마찬가지로 영어 교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교육계나 사회의 인식이 공히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의 교과는 수학능력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교과들은 단계별로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도 수월하게 학습해 나갈 수 있는 특성이 있어 학습부진에 대한 관리가 더 각별히 요구되는 교과들이다.

이와 같이 주요 교과목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영어 교과목이 20년이 넘는 현 시점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 교과목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제반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다. 어떠한 교과목에 대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리 잡는 데 20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영어교육은 이 시간 동안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하기 어렵다.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초등영어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현장의 교사들 및 기존 연구 결과들이 제안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이전 교육 방식과 다른 교육 효과를 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그러한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후동. (2007). 초등학교 영어 수업장학 활동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영어교육연구, 19(4).
- 고경희. (2005). 초등영어 담당교사 제도의 발전적 방향: 교과전담제와 학급담임제. 초등영어교육, 11(1), 5-31.
- 김민정. (2017). 읍면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는 담임 교사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김순도. (2001). 파닉스를 통한 초등영어 읽기지도.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김영민. (2010).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의 활용실태. 신영어영문학, 45(2), 223-246.
- 김영숙. (2016). 2009개정 교육과정 기반 초등영어 교과서의 파닉스 지도 내용 및 방법 분석. 초등영어교육, 22(4), 237-257.
- 김정렬. (20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도 제고 방안. 초등영어교육, 17(3), 7-31.
- 김혜련, 부경순. (2007). 초등영어 수업컨설팅 모형 개발 및 적용. 교육논총, 27(5), 395-422.
- 박선호. (2017). 초등학교 영어교육 20년: 담임교사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가? 교육논총, 37(3), 225-250.
- 박선호, 금선숙. (2011).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통한 내국인 및 원어민 교사 초등영어 팀티칭 연구. 초등영어교육, 17(3), 33-65.
- 박수정, 배지영, 민수정. (2017). 파닉스 지도가 초등학교 영어 학습부진 학생의 초기 리터러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등영어교육, 23(4), 171-191.
- 박약우. (1998). 초등영어 담당 교사의 자질과 제도. 영어교육, 53(2), 107-133.
- 박현진, 안경자. (2019). 컨설턴트 팀 기반 초등영어 수업컨설팅모형 개발

- 및 적용 효과. 초등영어교육, 25(1), 27-49.
- 송미나, 정혜영. (2015). 초등교사의 영어교육 경력에 따른 영어교육 전문성 인식 연구. 초등교육연구, 28(2), 103-128.
- 이상도. (2012). 효과적인 초등영어 협력수업을 위한 제안. 교육논총, 49(1), 273-283.
- 윤경진, 이재근. (2017).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파닉스 지도에 관한 교사 인식 조사와 개선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9), 515-540.
- 이영주. (2012).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들의 국가수준 영어과 학업성취도. 초등영어교육, 18(1), 5-25.
- 이은주, 정혜영. (2016). 초등 영어교사 요구에 근거한 교내 맞춤형 수업컨설팅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1-26.
- 이윤. (2008). 초등영어 수업컨설팅 실태 분석. 초등영어교육, 14(2), 45-71.
- 이제영, 장경숙. (2017). 초등영어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효과. 초등영어교육, 23(2), 91-118.
- 이효숙, 고경희. (2012). 초등영어교육 지도를 위한 현장 교사의 전문성 활용. 초등영어교육, 18(3), 211-233.
- 장모나, 김희진. (2019). 베스트영어교사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제주도 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855-876.
- 정평강, 최나리. (2019). 초등영어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파닉스 교수의 효과: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 623-649.
- 정현경. (2001). 음철법을 적용한 초등학교 영어의 효과적인 읽기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정희. (2002). 음철법(Phonics)을 활용한 문자 지도가 초기 읽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주영, 심창용. (2012). 상호 컨설팅을 통한 초등영어 수업 전문성 향상. 초등영어교육, 18(3) 307-336.

현규혜. (2017).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석사
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A B S T R A C T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n the Stability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Jang, Mikyoung

Major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Kyounghee

The following study is based on the views of five elementary teachers who have experienced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since its introduction into the Korean elementary schoo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insight into whether or not the elementary English curriculum is settled into the overall elementary curriculum. If it is not settled, then what changes are necessary to sufficiently incorporate i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guided the present study:

Research Question 1. Do the participating teachers view that the elementary English language instruction has been stabilized ?

Research Question 2. I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is not viewed as stabilized, what changes do the participant teachers suggest be made toward

stable practice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or Research Question 1, four out of the five participants expressed that English education is not yet settled with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Although there is disparity in the definition of “settlement” as a concept, the five teachers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commonly mentioned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of all, English classes not taught by class teachers do not provide favorable learning conditions for elementary learners. In the specialist teacher system, professional development happens to only a limited number of teachers. Also, teacher support systems such as native speaker teacher assistants and special teachers for English conversation often results in inappropriate teaching practices.

Secondly, in the specialist teacher system, it is difficult to provide appropriate education for lower-level learners, which in turn lowers the likelihood for these students to be ready for the next grade within the English curriculum.

Thirdly, there have been gaps in the elementary English curriculum such as the absence of phonics. There has been little support in the area of teaching methodology.

Lastly, there has been little information sharing and discussions regarding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among teachers.

The research results of Research Question 2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commended that the class teacher system be adopted in order to promote learners' learning. The transition to the class teacher will be a mechanism to create a higher quality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environment, which will reduce or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in Research Question 1.

Secondly, Korean elementary teachers should lead English education. Discussions to identify ways to utilize native teacher assistants more effectively are needed. Adequate education and proper assessment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achievement of learning aims of a given grade curriculum. The class teacher system, optimal for the purposed needs to be practiced.

Third, efforts are needed to develop stages for literacy development in elementary English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tent of textbooks in consideration of learners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stages of effective teaching methodologies.

Fourth, a scholarship atmosphere should be formed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sharing of creative teaching strategies, methods and activities conducive to the field of English education to enhance the educational effect.

Previous research in line with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s discussed. Attention and efforts are called for in order to equip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with more facilitative teaching/learning environment.

Key words: the Stability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dedicated elementary English curriculum, native English teacher, elementary English education